

Style

조선일보

JULY 2021
vol.223



Cartier





BVLGARI COLORS

A JOURNEY BETWEEN JEWELS AND ART

불가리 컬러 전시회

2021.07.20 - 2021.09.15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전시회 티켓 수익금의 일부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내 아동들에게 후원됩니다.

SNOW WHITE

더운 여름을 눈꽃처럼 차갑게 만들어줄 화이트 아이빙. (우부터) **디올 트리아넵 아이빙** 화이트 펄의 우아함에 크리스탈과 골드 마감으로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다이아나 에덴 아이빙 다이아나 의 시그니처인 스네이크 모티브의 핑크 골드 화이트 펄로 세라믹 아이빙 2백59만원. 문의 02-3213-2141 **펜디 큐브 아이빙** 화이트 대리석 느낌의 자개 소재로 이루어진 큐브 형태 디자인에 골드 컬러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60만원대. 문의 02-514-066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영민**

INSIGHT

경쾌한 여름

휴양지에서 여유와 낭만을 꿈꾸게 하는 불가리 라피아 세르펜티 백. 자연 친화적 라피아 소재로 제작한 스트러처 스타일에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뱀 머리 장금장치를 장식했다. 프란지 장사과 톤온톤 피니싱 디테일, 라피아 소재와 주얼 스톤의 세련된 조합이 바다에서는 물론 도심에서도 매력적인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라벤더 에미사스트, 카민 재스퍼, 블랙 칼라를 입힌 3가지 사이즈가 주력으로 구성했다. 3백만원. 문의 02-2066-0170



MASTER PIECE

주얼리와 워치메이커로서 까르띠에의 무리익은 역망과 가짐없는 장인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파사드 까르띠에 스퀘레틴 워치. 매중을 상징하는 팬더를 모티브로 베젤과 팬더 모양 브리지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고, 마구즈 컷 에메랄드로 팬더의 눈을, 블랙 오피니움 코를 표현해 매력적이고 관능적이다. 퀵 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한 다크 그레이 알티메이티 가죽 스트랩으로 품격을 더했다. 7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매뉴얼 와인딩 매카니컬 무브먼트 9625MC로 구동한다. 1억6천만원대. 문의 1566-7277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COMFORT ZONE

캐주얼하고 스타일리시한 서브 슬라이드. (우부터) 부드러운 양털을 덧댄 마비로세 시아링 슬라이드 1백55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패브릭 플립플롭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견고한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한 LV 신발 플랫 캠프트 율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아이코닉한 FF 패턴을 적용한 세련 스토파가 특징인 와이드 밴드 플랫 슬라이드 90만원대 **벤디**. 문의 02-514-066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미**

SUPER NATURAL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에서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프란티오 안토나체(Frantio Antonnacci)사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국제 유기농 올리브 오일 경연대회(OIU)에서 금 은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오일이다. 풀리페를 수치가 가장 높은 코르티나와 올리브로라 품종 위주로 생산하며 황양, 차폐·당노병·상장 결함 예방,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엑스트라비오, 페란자나, 코르티나 모두 각 500ml 3만9천원 **삼부대유모**. 문의 02-575-7070 saluleyoomo.com



투명하게 빛나는

자외선 차단력 있는 여름 피부에 투명한 빛을 찾아줄 에센스. 랑콤에서 피부 효소 엔자임 사이언스 기술을 담은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 클라피피 듀얼 에센스를 출시한다. 3%의 오일 에센스와 97%의 클리어 에센스가 2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독특한 텍스처가 인상적이다. 병을 흔들면 내부에 잠겨진 휘스크가 2개 층이 잘 섞이게 해주어 미세 거품을 만드는데, 이마미크로 비블이 에센스를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 목은 각질과 모공을 케어하고 수분을 보충해 피부 사이클을 촉진해 4주 후 한층 더 맑고 투명한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 150ml 12만6천원대. 문의 080-022-3332

NEW BOUTIQUE



침구에 진심인 럭셔리 애호가라면 꽤 빈가워할 만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지난 6월 말 서울에 입성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여의도)부터 세계 최상급 럭셔리 호텔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이우르는 1백61년 역사의 이탈리아 럭셔리 침구 브랜드 프레페(Frette)가 서울 입구장에 약 132㎡(40여 평) 규모의 단독 부티크 매장을 열었다. 밀라노 기반의 건축 디자인 사무소 아르칸브란도(Archibrandto)가 내부 설계를 맡은 프레페 서울은 다양한 라번 제품과 홈 액세서리 등 이탈리아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전 라인업을 국내 고객에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전세계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프레페 기술의 장수인 '리미티드 에디션'도 시즌마다 소개할 예정이다. 매장 내에 비스포크 셔츠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있어 개인 주저를 비롯해 요트, 전용기 등의 맞춤 라번에 모노그램 각인은 물론 기운의 문장과 자수 디자인 등 다양한 커스텀 디자인과 사이즈 제작이 가능하다(사전 예약제 우선). 문의 02-3443-7470

행운의 주얼리

크리스찬 디올이 유년 시절을 보낸 그랑빌의 빌라. 그곳에서 받은 영감과 그가 가장 사랑했던 꽃, 장미를 모티브로 한 로즈 드 방 컬렉션은 소중하다. 여행의 상징이자 장미 모티브를 담은 메달리온을 배에서 쓰는 로프를 상징하는 골드 체인을 사용해 링,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한다. 이 작은 주얼리에 디올 하우스의 모든 역사와 로즈 드 방의 창조에 대한 메타포가 담겨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FACTORY 5

N5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샤넬은 N5 아이콘으로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완전히 새로운 컬렉션, 'CHANEL FACTORY 5'를 선보인다. 일상적인 오브제에서 영감을 받은 17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N5의 특별함을 떠올리게 한다. 초현대적인 팩토리를 담은 패키지의 새로운 샤넬 N5 제품 17개로 이루어진다. 그중 바다 오일은 샤넬 N5 향을 좀 더 은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리미티드 컬렉션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N5 바다 오일 250ml 10만9천원. 문의 080-332-2700



SALON CARE

헤어 슌에 가지 않아도 고품격 관리를 받은 듯 특별한 케어를 도울 수 있는 헤어 케어 솔루션. (우부터) 시계 발행 **프랑코 헤어 마스크 히노키** 목욕할 영양감이 느껴지는 헤어 마스크로 샤워 후 은은하게 느껴지는 히노키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250ml 5만1천원대. 문의 02-6971-3204 **발망 오베. 이트 리메이 세럼** 집중적인 헤어 트리트먼트를 위한 리치한 텍스처의 헤어 세럼으로 모발 회복과 강화에 도움을 준다. 30ml 15만원. 문의 02-515-0960 **에베다 프라시나 나리닝 스킵프 마스크** 두피에 사용하는 트리트먼트로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해 두피를 건강하게 만든다. 150ml 5만4천원대. 문의 02-6971-32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영민**



다음 북투트백
36.5x27.5cm,
3백50만원 **다음**.

메시 소재 스니커즈
70만원 **오프 화이트**.

타워이스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톤 플러쉬 컬러
아이템 5백만원 **반플리프 아벨**.

키프 레더
플라스크 홀더
80만원 **켄디**.

스트링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옐로 하프 셔츠
58만원 **스포츠 맥스**.

스트라이프 패턴
레드 볼 캡 50만원
에르메스.

스트라이프 밴드
가죽 미장 **셀린스**.

CELINE

CELINE

화이트 테니스
스커트 14만9천원
라코스테.

Babolat
TEAM ALL COURT

팀 울 코트
테니스 9만원
바벨랏.

오렌지와 옐로 컬러로 강렬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스니커즈 가죽 미장 **처치스**.

2백90만원 **조지 워렌 에디터 아카이브**

프레이 허팅스
애니멀 자수
퀵박스 쇼츠
1백14만원 **구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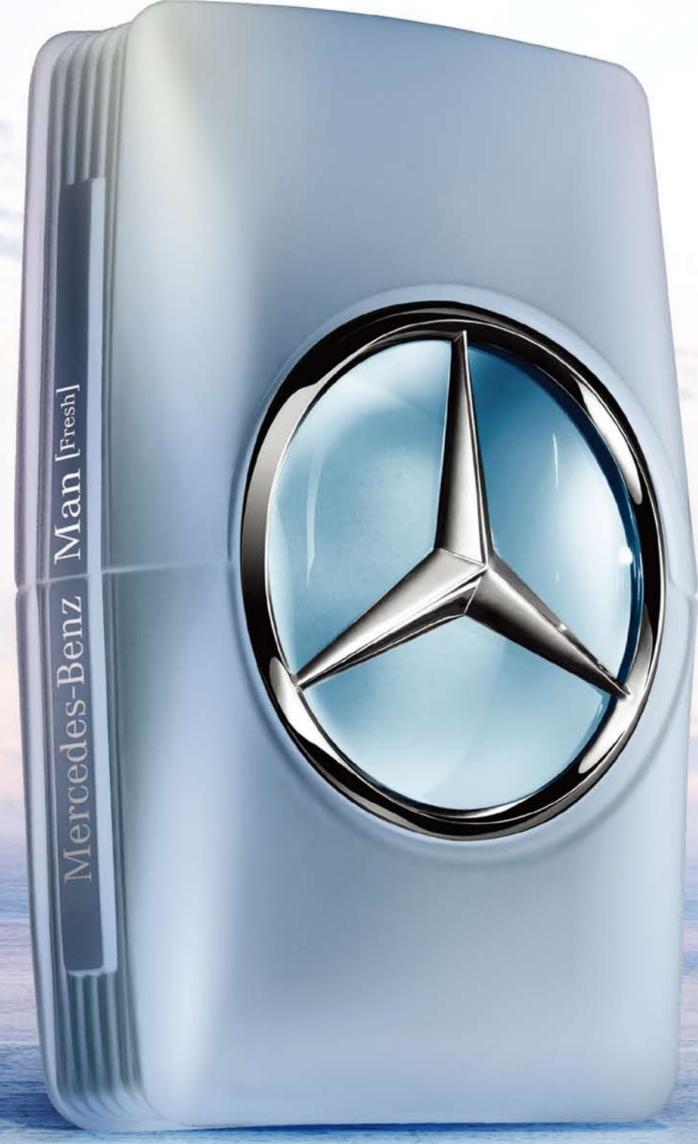
리나일론 미니
블랙 파우치 67만원
프라다.

이쿠아티아퍼
크로노그래프
갈라비고스 아일랜트
에디션 1천2백50만원
IWC.

다음 02-3480-0104 오프 화이트 02-517-7572 스포츠 맥스 02-511-3935
반플리프 아벨 1668-1906 켄디 02-514-0652 헤드 1577-4323
에르메스 02-544-7722 라코스테 02-514-9007 셀린스 02-549-6631
켄틀몬스터 1600-2126 바벨랏 02-2203-1931 처치스 02-3218-5331
구찌 02-3452-1921 프라다 02-3218-5331 IWC 1670-7363

Mercedes-Benz Man.

Fresh, the new eau de toilette.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 수입판매처: 서울하이퍼인터네셔널 | www.cco.kr | 문의: 060-363-5454

Mercedes-Benz



현대미술과 치유의 계보학

'리외의 시나에서 들려오는 (페스트의 종료를 기뻐하는) 환희의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환희가 늘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알베르 카뮈가 1947년 발표한 장편소설 <페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유럽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나가면서 일각에서 환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상에 치명타를 날린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해외 우수 미술관에서는 '재난', 그리고 그에 따른 '힐링'을 다루는 전시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미술의 시작이기도 한 '제'의 가치와 힐링 아트의 계보와 적극적인 치유책으로서 '미래 아트'를 함께 다뤄야만 균형 있는 모습이 갖춰진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당면한 아픔을 달래는 소극적인 예술적, 사상적 치유만으로는 카뮈의 날카로운 경고처럼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등에 살아 있던 균이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주기 위해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난과 치유) 전시에 선보인 요제프 보이스의 작품 '근경의 일부(Plight Element)'(1965), 펠트와 혼합 재료, 147 X 330 X 41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Joseph Beuys / BILD-KUNST, Bonn - SACK, Seoul, 2021 2 베를린 할부르크 반호프 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에서 요제프 보이스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개최 중인 전시 작품 중 '트렁크 정류장, 미래를 위한 기념물(Strassenbahnhaltestelle. A Monument to the Future)'(2, 버전, 1976), 철, 234cm, 74 X 837 X 246cm, © VG Bild-Kunst, Bonn 2021 / Staatliche Museen zu Berlin, Nationalgalerie, Sammlung Marx / Thomas Bruns 3 요제프 보이스의 전화, 타게스차이틀, 관현(Am Telefon, Tages-Zeitung, München)(1980), 포스터, 오프셋 인쇄, 1980, 61 X 34, 8cm, © VG Bild-Kunst, Bonn 2021 / Staatliche Museen zu Berlin, Kunstbibliothek 4 1990년 7월 20일, 현대미술 뒷마당에서 보이스의 사거 4주년을 기념하는 백남준이 발간 추모 글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 백남준이 과거 전시에서 박살 낸 파이프 위에는 보이스를 상징하는 친숙한 형태, 그러나 낯선 한쌍의 모자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5 상기 추모 글에서 백남준은 보이스의 사인 과 자신이 보이스에게 지어준 한국 이름 '보이슈(博秀)'가 적힌 병풍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6 라스코 동굴벽화? 원년 15,000~13,000년경에 등장하는 누워 있는 인물이 다친 수렵인이라는 정설에 반해, 새 가면, 새 모양의 손, 서 있는 상기 등을 근거로 사면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인류가 있고 있는 최초의 구석기 '사면'이다. © Universal Images Group via Getty Images / 게티이미지코리아 7 베를린 신국립미술관(Neue Nationalgalerie)의 재관 개관전에서 베를린 다다 그룹의 유일한 여류 작가인 나 혼텐의 대표작 다다 부엌으로 독일의 마작 마터 맥주 배를 장식하다(1919~1920, 콜라주, 114 X 90cm)를 선보이고 있다. © VG Bild-Kunst, Bonn 2021, Nationalgalerie - Staatliche Museen zu Berlin / Jörg P. Anders 8 헤켈은 개성화로 미술이 증명 한다고 예언했는데, 마르셀 뒤샹은 그의 레디메이드 작업인 '샘(남성용 소변기, 1917)에 헤켈의 그 개념을 콜라주하는 정공법으로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박명처럼 목마시켰다.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9 PKM 갤러리는 코디 최(2017년 베-스 비엔날레) 한국인 작가의 '애니멀 토폴 연작(Animal Topology Series)' 중 1점을 NFT로 제작해 지난 5월 19~23일 아트 바젤 홍콩에서 선보였다. 이미지 제공, PKM 갤러리 10 비블의 NFT 미술 작품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Days)'이 지난 3월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7백70억원에 판매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3대 작가 중 한명이 되었다. Courtesy Christie's

힐링 아트의 시작과 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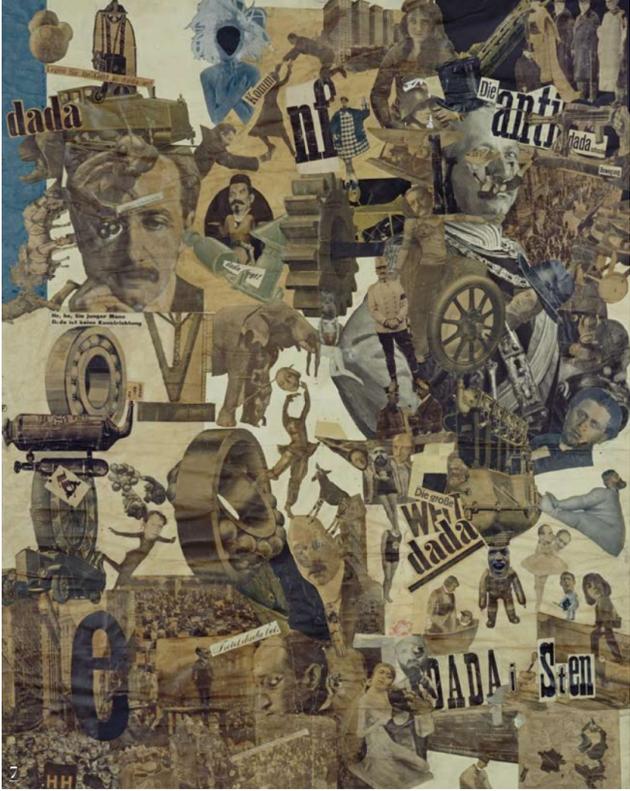
미술사는 시초부터 치유와 깊이 연결된 '힐링 아트'로 시작됐다. 고대에 행해진 제의 방식은 소, 양, 사람 등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소통'을 통해 인간과 신의 수직적 관계를 먼저 치유하는 것이다. 제물을 희생(犧牲)한 신은 질병을 고쳐주거나, 불행이나 불상사를 예고해 피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며 이때 사용한 제기, 연주, 행위, 언어 등은 조형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으로 발전된다. 발터 벤야민은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두 가지 특징적 성격으로 '제의 가치'와 '전시 가치를 꼽으며, 이 두 가치의 반복과 과정이 곧 예술의 역사라고 봤다. 그런데 근대로 접어들면서 작품의 오라를 뿜어내는 '제의 가치'에서 '전시 가치'로 무게중심이 옮겨 갔고, 치유의 역할은 과학이 대신하게 됐다. 예술의 심장과도 같은 '치유의 기능'은 과학에 넘겨주고, 오라는 시장에 내다버린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의 여파인 지 오라가 스물스물 배어나오는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미술사에서 제의를 행한 최초의 사면은 누구였을까? 2천여 점의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자랑하는 라스코 동굴벽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을 아는가? 이 등장인물이 다친 수렵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일각에서는 '사면'이라고 보는 학자가 늘어나고 있다. 새가 앉아 있는 축대(axis mundi) 옆에 누운 이 사람은 새 가면을 쓰고 있는데, 새 모양의 손, 발 끈 서 있는 웅장한 성기 등을 근거로 엑스터시에 빠진 사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 앞의 들소는 창자를 쏟아내며 죽어가고 있는데, 에로스(사랑의 충동)와 타나토스(죽음의 충동)가 기묘하게 얽혀 있다. 예술 사학자 아베 브뤼유(Abbé Breuil)는 라스코 동굴을 가리켜 '선사시대의 시스텐 성당'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의례였고, 그 장소는 자성소였다.

현대미술에는 2명의 원조 사면이 있다. 요제프 보이스와 백남준이다. 사면은 의사의 원형이다. 무당은 치병과 유희적 기능이 중요한 존재이며, 죽음(신령, 영혼/죽은 토끼, TV스크린 등)을 통해 산 자를 치유한다는 역할을 실천한다. 요제프 보이스가 조용히 앉아 많은 것을 사유케 하는 회색빛 사면이라면, 백남준은 혼란스러운 색을 동원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디지털 사면'이다. 보이스는 모든 통과리례를 거치며 온갖 노력 끝에 사면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강신'이라면, 백남준은 어릴 때부터 굶을 자주 접해 자연스럽게 무당이 된 '세습'무 같다.

유럽형 원시 무당 요제프 보이스와 한국형 디지털 사면 백남준

베를린 할부르크 반호프 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에서는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요제프 보이스(1921~1986)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그는 과학에 주도권을 빼앗긴 치유의 현대적인 계승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근대까지의 거대 담론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적 신화를 내세우며 치유 방식을 현대화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존 사건에 바탕을 두고 사실과 신화(허구)를 적절히 섞으며, 사면이 되는 의례를 거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3년, 폭격기 부조종사 요제프 보이스가 탄 비행기가 격추된 사건인데, 의식불명의 그를 타타르(Tatar)족 유목민이 발견해 동물의 지방, 펠트 천 등으로 치료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보이스는 작업, 저서 등을 통해 자신이 겪은 사건을 곱



임없이 상기시키며, 지방과 펠트를 생명을 감싸주는 에너지와 치유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수색 특공대가 발견했을 때 사고 장소에 타타르인은 없었고, 그는 군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서부전선에 재배치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사실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신화'이기에 그의 치유 예술 혹은 사면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그는 사면이 되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가 겪은 사건은 일종의 '무병'이자 '통과의례'였다. 전쟁을 직접 겪으며 치유의 절실함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감동적이고 절절한 작업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생존 사건부터 이후의 미술 작업까지 '모든 일이 치료 과정'이었기에 그는 "예술가는 시대의 상처를 지적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오스에 가까운 성격의 원시적인 사머니즘을 통해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치유책으로서 미술의 본질을 깨닫게 했다.

무속 신앙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지녔던 백남준(1932~2006)은 스스로를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도록 부추기는 광대와 '굿쟁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무속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한마디로 '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점과 점들이 으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이으면 면이 되고, 결국 오브제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겠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한국의 무속은 따지고 보면 세상의 시작인 셈이지." 백남준이 세습무 같다고 했지만, 그 역시 하데스의 세계에 다녀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18세였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자신이 공산주의를 피해,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피란 열차를 탔다는 사실은 그의 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폭탄이 터지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더욱 치열한 내적 전쟁을 겪었다. 이때 그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었고, 모든 판단을 유보하게 되었다.

'디지털 사면'인 백남준은 헤테로토피아 세계에서 적절한 '소통'의 도구로서 '개인의 신앙'이라고 보다는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사머니즘을 적용했다. 1963년, 백남준은 첫 개인전을 앵겔스의 고향 부퍼탈(Wuppertal)에 위치한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그는 고대 제의 문화에서 가장 귀한 희생 제물이던 '소의 머리를 고대 그리스 신들의 지성소인 파르나스 갤러리 입구에 설치했다. 이는 동양사 신화에 20세기의 새로운 신화인 디지털 세계를 콜라주한 세계 최초의 전시였다. 1990년 7월 20일, 현대화랑(갤러리현대) 뒷마당에서 그는 보이스 사거 4주기를 기념하며 '후모 굶'을 벌였다. 그는 보이스를 연상시키는 오브제, 한국 굶에 흔히 사용하는 오브제, 반면 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이프나 요강 같은 오브제 등을 여기저기 놓았다. 굶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비롯한 이질적인 것들을 만나게 하는 4D의 콜라주다. 백남준은 말쑥한 파이프를 걸어치고, 남성용 소변기를 작품화한 '샘(1917)의 한국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강'으로 연주를 한다. 그가 한바탕 벌인 굶을 보면, 각각 서로 다른 공간에 속했던 오브제를 한 장소에 놓으면서 그것들이 서로 부딪치게 한다. 근대에는 이러한 부딪침을 최대한 제거해 자연스러운 흐름(연화 과정)을 추구했으나, 다다이즘부터는 오히려 이러한 부딪침이 상쇄되지 않도록, 타자의 독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3의 약사 마르셀 뒤샹, 그리고 콜라주로 점철된 현대미술 생태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미술계의 또 다른 치유자가 있다. 미술 그 자체를 추구한 마르셀 뒤샹(1887~1968)이다. 앞서 언급한 작품 '샘'을 선보여 세상을 발칵 뒤집은 주인공이기도 한 뒤샹은 이보다 2년 전인 1915년, 자신의 오브제를 '레디메이드(기성품)'라고 이름 붙였다. 하물며 그



는 '투브 물감도 이미 제조된 생산물인' 색의 레디메이드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작업은 레디메이드이자 아상블라주(asssemblage, 콜라주의 3D)인 셈이다. 이렇게 현대 미술이 시작되었고, "레디메이드 색(색상표)을 사용한다"며 색의 평등성을 콜라주하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4900가지 색'처럼,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콜라주' 발전되고 있다. 콜라주에는 크게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 우선 화면에 시각적인 이질감을 직접 대치시킨 유럽형 다다이스트의 콜라주가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체하고자 했던 다다이스트의 아이러니는 다다가 '배타적인 남성 연합(Walter Mehring)'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편향된 세계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눠주는 착한 여자(Hans Richter)'인 한나 회흐(1889~1979)는 훌륭한 작업을 했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다다 부엌'으로 독일의 마지막 바이마르 맥주 배를 절개하다(1919~1920)를 보면 정치, 문화, 댄스, 패션, 과학, 시대적 상징 등과 함께 반(反)다다와 친(親)다다의 대립을 한 화면에 몰아넣으며, 현실 자체가 이러한 이질감의 아상블라주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이 작품은 6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문을 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재개관 기획전에서 선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뒤샹의 방식처럼 오브제에 개념을 접합하는 미국형 콜라주가 있다. 뒤샹은 '샘(남성용 소변기)'에 '개념'을 콜라주했다. 헤켈이 개념화로 인한 미술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개념'을 오브제(레디메이드)에 콜라주한 것은 기가 막힌 반격이었다. 헤켈의 말대로 근대미술은 종말을 맞았으나, 뒤샹 덕분에 현대미술의 다원성이 폭발했다. 현대미술의 설치, 조각 등에서는 유럽형 3D 콜라주가, 평면 작업에서는 미국(뒤샹)형 콜라주가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샘'에 디지털 세계(AI, AR, VR, NFT 등)가 콜라주되고 있는 형국이다.

도전!아발로! 적극적인 치유의 예술

재난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최선의 힐링 아트는 결국 '도전'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 아트'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다. '제의'에서 신과 목숨을 걸고 대면하는 것처럼 적극적이야 한다. 인류를 우리는 여러 재난 중 하나는 '자본'에 휘둘리는 예술'이다. 요즘 논쟁이 되는 디지털 경제의 키워드에서 미술계도 예외가 아닌데, 여기에는 '비블(Beeple)'이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NFT 아트'가 7백70억원의 경매가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자리한다. 세계 양대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그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물꼬'를 댔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물꼬의 조절기가 경매업체나 미술 시장에 넘어갈 징조인 것 같아 두렵다. 현대미술계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지적처럼 NFT 아트가 잘못될 것이라면 닛 놓고 비판할 게 아니라 열린 그 대안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앞질러 가야 한다. IT 인프라가 강한 한국의 미술계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최초의 NFT 전시와 포럼 등을 개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며, 여기서 '아차' 하면 또 늦어져서 서구 미술계를 쫓아가느라 허둥댈 게 뻔하고, 미술은 자본의 손아귀에 서 늘어나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 작가, 갤러리스트, 연구자 등 미술 관계자들은 '코로나' 퇴치라는 경주용 신호총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로 있다. 곧 움직일란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종일일까? 글 **심은록**(한국대 경원 교수 · 리움-심은록 미술연구소 소장) 기획 **고성연**



still cool

차갑지만 세련된 스틸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카르띠에 발롱 볼루 드 카르띠에** 우주기 탄성한 순간, 공간의 팽창과 시간의 연속을 상징하는 고전주의와 미래 지향주의를 동시에 담았다. 지름 36mm 스틸 케이스는 조약돌 같은 세이프로 곡선의 볼록함과 볼록한 양면을 강조한다. 무중력 상태를 연상시키는 손목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듯한다. 여가 에 기본송 컷 사파이어로 장식한 크라운을 더해 웅장한 느낌을 실었다. 7백60만원대. 문의 1566-7277

제닉스 크로노미터 스포츠 케이스 지름 41mm의 화이트 다이얼에 세 가지 컬러의 카운터를 배치하고, 스틸 브레이슬릿을 더해 미래 지향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물 세컨즈는 10 초에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즈로 하 0엔드급 기능을 지원한다. 6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까지 일 프 리메로 3600 오토메트로 작동한다. 1천3백72만 원. 문의 02-3479-6191

브라이틀링 내비타이어 B01 크로노그래프 43 실버 다이얼과 고전적인 내비타이어, 스틸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클래식하다. 케이스 지름 43mm에 두께 14.25mm로 시침과 분침은 슈퍼-루미노바자로 코팅했다. 원형 슬라이드 볼과 양방향 회전 베젤을 장착해 전문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을 실었다. 70년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에거 로블트르 플라르니스 크로노그래프 지름 42mm 케이스에 3개의 링크 스트랩으로 구성된 스틸 워치다. 짙은 컬러의 오스메이팅 웨이팅은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오픈 케이스 백 형태로 그림 메종에서 탄생하고 워크숍에서 손으로 조립한 에거 로블트르 캘리버 751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다. 베젤을 감고 시간을 설정하는 크라운은 아나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활성화하는 2개의 푸시 버튼을 갖는다. 1천8백만 원. 문의 02-6905-3988

IWC 빅 파인릿 43 1940년대 군사 관측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간결하고 기능적인 조종석 계기판 디자인과 원형형 오버사이즈 크라운을 애착했다. 다른 요소를 더하지 않아 오리지널 디자인을 충실하게 재현한 간결한 다이얼과 지름 43mm의 스틸 케이스가 손목 위에서 더욱 돋보인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이지 체인지 시스템 덕분에 카프 스크리너 러버 스트랩 중 선택해 손쉽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1천2백만원. 문의 1670-7363

해밀턴 카키 네이비 스쿠버 해군 활동에서 영감을 받은 네이비 스쿠버는 클래식 다이버 시계의 전통을 이어나간다. 지름 43mm 케이스로 수심 300m 방수 가능하며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정밀함과 스포티함을 더한다. 다이얼과 매치되는 베젤은 워터 레지스턴에서 최첨단 소재로 손잡는 세라믹으로 제작해 스크래치와 부식에 강하다. 12시 방향에 대한 슈퍼-루미노바® 도트는 실시간으로 장수 시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1백38만원. 문의 032-320-7559

블가리 옥토퍼 파나세오 크로노 GMT 케이스 두께 8.75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섀프 와인딩 워치이자 크로노그래프와 GMT 기능을 갖춘 워치다. 블루 선웨이 다이얼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클래식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43mm 엑스트라-스킨 세라믹-폴리머 스틸 케이스에 원형 보라스 베젤을 더했고, 세라믹 인레이를 갖춘 폴리싱 스틸 스크류-다운 크라운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남성을 부각한다. 2천만원대. 문의 02-2056-0170 에디터 **성정민**

exotic dreams

마라케시에서의 이국적인 낭만을 상기시키는
영롱하고 매혹적인 에스닉 스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스티븐 핑커의 메그나피엔트 패더 브레이슬릿** 다채로운 컬러 스톤으로 빛나는 다양한 볼록함이 돋보이는 주얼리 피스. 화이트 골드 워 페라드트와 시트린, 블루 토파즈와 에메랄드, 로돌라이트와 레드 가시,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로 강렬한 개성을 담았다. 6천만원대. 문의 02-2231-1502 **프레이드 벨리브 네그리노** 크리스토프로이츠와 스위스 블루 토파즈, 런던 블루 토파즈와 네브라이트 칩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매혹적인 빛을 그려내는 네그리노. 탁월 기능한 드림 펜던트로 다채로운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8천1백62만원. 문의 02-514-3721 **피에르 생라이트 펜던트 네그리노** 약 2.37카트의 말라카이트 보석 주위를 다이아몬드 세팅 트리아앵글 모티브로 둘러싼 양의 눈부신 광채를 표현했다. 5백35만원. 문의 02-3479-1802 **반벨르프 아메 베를리 갈리 브레이슬릿** 골드 비즈 장식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에 고혹적인 카탈라냐와 다이아몬드를 더한 매혹적인 피스. 2천4백만원대. 문의 1668-1906 **블가리 디버스 드림 아이링** 토파즈와 루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화려하고 경쾌한 조합이 돋보이는 제품. 부채꼴 드림 모티브가 유쾌한 감성을 풍낸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스파드 임 페어리 링** 생세한 다이얼로 왕실의 귀환 감성을 담은 인피리얼 컬렉션. 로즈 골드 밴드에 자수성을 올리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빛과 풍위를 더했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390 **부쉐르 세팅 리피노 라줄리 루헤드 링** 골드 비즈 기법으로 밤의 비늘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아이링. 트루스트 밴드 7개의 라 피노 라줄리를 놀라움에 감싸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6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에디터 **이유미**

이 스톤은 에스닉



HOT ISSUE

유니크한 모드, 매혹적인 스타일링,
그리고 강렬한 열정. 보테가 베네타의
2021 F/W 프리폴(pre-fall)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더블 패이스 울 모헤어 코트,
아이코닉한 체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몰 마운트(The Mount)
엔벨롭 백 모두 보테가 베네타.

하이 라인 리더 카프 코트,
라이트 웨이트 테크노 스킨 니트,
올 캐버린 팬츠, 이어링, 풀
모두 보테가 베네타.



라이트 웨이트 테코노 스킨 니트,
페더 디테일의 대님 팬츠, 아이코닉한
체인 디테일의 화이트 미디엄
마운트(The Mount) 앰블럼 백
모두 보태가 베네타.



프린지 디테일의 니트 코트,
스파클 스트래지 샌들
모두 보태가 베네타.





페디 다테일의 테크노 스킨 드레스,
트라이앵글 형태의 화이트 컬러
이어링, 실버 링, 우드 핸들이
특징인 마운트(The Mount)
버뮤다 백 모두 보타가 베네다.

페디 다테일의 테크노 스킨 코트,
이어링, 울 모두 보타가 베네다.



워터프루프 매트 카프 스킨 롱,
쇼츠, 페더 노트 샌들, 아이링,
부드러운 라피엘로 소재의
스몰 마운트(The Mount)
엔벨롭 백 모두 보타가 베네타.



노티드 헤링본 코트, 팬츠,
각테일 스트레치 나파 울,
체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웨이드 소재의
마운트(The Mount) 엔벨롭 백
모두 보타가 베네타.

문의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아이영
모델 Natali Colugnatti, Liza Kryskina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summer vibe

호강스를 즐기는 당신의 손목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줄 위치를 모았다.
작지만 섬세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으로
완벽한 여행 동반자가 되어줄, 오메가만의
럭셔리한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위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스톨 세컨즈

럭셔리와 우아함의 상징인 오메가의 베스트셀러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스톨 세컨즈'는 스톨 세컨즈 서브 다이얼 기능을 더해 완성도를 높인 컬렉션이다. 은은한 햇살에 그을린 듯한 색조의 다이얼과 눈길을 사로잡는 투톤 티크 패턴의 아워 마커, 6시 방향부터 12시 방향까지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필 인레이로 이뤄진 범선 모양 인덱스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세련된 화려함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톨 세컨즈 38MM** 화이트 자개로 디자인한 다이얼의 은은한 광감이 돋보이는 워치. 18K 세드나 골드™ 홀더로 장식한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반짝임을 더해 햇살 아래 더욱 고귀한 자태를 자랑한다. 다이아몬드 서빙의 스톨 세컨즈 서브 다이얼은 오메가만의 섬세함과 독보적인 우아함을 전한다. 2천1백만원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톨 세컨즈 38MM** 오메가의 오랜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타이피스. 대항을 이루는 지름 38mm 케이스는 18K 세드나™ 골드 및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했으며 케이스 백의 워터브-에지 디자인이 돋보인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태양광 패턴의 라이트 그린 다이얼과 날개장, 18K 세드나™ 골드 링을 갖춘 서브 다이얼이 매력적이다. 1천4백만원대.



컨스텔레이션 스톨 세컨즈

컨스텔레이션은 이리코브한 클라와 반달 모양의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오메가의 아름다움과 정확성을 상징하는 타이피스다. 올해는 기존 컬렉션에 생기를 더하는 다이얼과 스트랩 컬러 등 독특한 디테일을 추가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케이스 지름 34mm 사이즈를 추가했으며 18K 세드나™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두 소재의 조합 중 선택 가능하다. 베젤에는 로마숫자를 새기거나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극강의 럭셔리 타이피스의 면모를 완성했다.

(왼쪽부터)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톨 세컨즈 34MM** 18K 세드나™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 지름 34mm 사이즈 모델로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련된 베젤과 화이트 자개 다이얼이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을 더한다.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를 18K 세드나™ 골드 홀더에 장식했으며 스톨 세컨즈 서브 다이얼 링 또한 18K 세드나™ 골드로 제작하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2천1백만원대.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톨 세컨즈 34MM** 오메가만의 독특한 반달 형태 디자인과 케이스 측면에 장식한 클라가 돋보이는 워치. 18K 세드나™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 지름 34mm 사이즈 모델로 로마숫자가 새겨진 베젤과 밝은 체스넛 컬러 다이얼이 유니크한 멋을 드러낸다. 1천4백만원대. 에디터 **성정민**



옥스퍼드 소재 블라우스, 프린트 저지 소재 스우잉 탑, 옥스퍼드 소재 바유디팬츠, 핑크 컬러 주얼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넬**.



옐로 컬러 드레스 2백만원대, 로고 비카니 70만원대, 카키 컬러 벨트 가격 미정 모두 **펜디**.



나이비 컬러 코튼 롱 재킷 가격 미정, 디올 오블리크 비카니 탑 53만원, 비카니 브리프 53만원, 라피아 소재 슬라이드 1백19만원 모두 **디올**.



신세르-그림 라미네이션 후디드 재킷 9백19만원, 모노-그림 울보레 깃이웃 캠퍼스 스웬슈트 95만원, 화이트 컬러 라미네이션 롱 백인인 모두 **루이비통**.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정
모델 정소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사넬 080-200-2700
보테가 베네타 02-3433-7601
디올 02-3480-0104
펜디 02-514-0692
루이비통 02-3432-1954
발렌티노 02-2051-4652
말레티노 02-2051-4652
조이 그리폰 030-202-2002
데어호 다이얼 02-246-4468
모트레이트 리프트 070-4052-2038
토리버서 1599-9679

Aviation Spirit

선구적 기술력과 현대적
미학 코드로 무장한
IWC 샤프하우젠 빅 파일럿 워치 43.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모든 IWC 샤프하우젠의 워치에 새겨진,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 부스 스카푸시아(Probus Scafusia)'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IWC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력을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삼는다. 역사와 혁신의 연결체로서 빅 파일럿 워치 43 컬렉션은 기술력과 내구성, 미학적 가치를 겸비한 수작이다. 지름 43mm의 이상적인 사이즈로 구원한 케이스에 블랙 또는 블루 다이얼을 매치하고, 어두운 다이얼 위에 옅린 흰색 숫자 인덱스가 명료한 가독성을 그려낸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충실하게 따른 원뿔 모양 오버사이즈 크라운과 단순 명료한 디자인으로 항공 시계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10바(bar)의 방수 성능과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자체 제작 무브먼트 82100으로 구동하며,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적용한 케이스 백을 통해 독창적인 설계와 기술력으로 빛어낸 메커니즘의 복잡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틀 없이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지엑스-체인지 시스템으로 카프 스킨과 러버 스트랩, 브레이슬릿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라믹 부품을 사용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은 스포츠 시계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발휘한다. 문의 1670-7363 **에디터 이주이**

향후 더 관점에서 디자인해 시인성이 뛰어난 숫자 인덱스를 옅린 블랙 다이얼과 다크 브라운 카프 스킨 스트랩으로 기쁨을 유지한 모델 1천70만원. IWC.

(왼쪽부터 차례대로) 원뿔 모양 오버사이즈 크라운으로 오리지널 모델을 완벽하게 재구성한 빅 파일럿 워치 43, 블루 다이얼과 로동 도금 핸즈, 블루 카프스킨 스트랩이 세련된 조합이 돋보이는 모델 1천70만원, 미세 조정 시스템을 장착한 인베 공화적 타이퍼드형 고급 스틸인민스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은 1천2백만원 모두 IWC.



Be light

미니 백 속에 꼭 들어가는 여름 쿠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구찌 뷰티 부드르 드 보에 마스크 나뮤텔 뷰티 파우더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파우더로 입자가 미세한 가벼운 텍스처가 변들 거부는 피부를 즉각적으로 매끈하게 보정한다. 페일 핑크 컬러 케이스에 새긴 골드 레퍼원으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10g 8만2천원. 문의 02-3452-1921

나스 뷰어 레디언트 프로텍션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수분감 넘치는 텍스처로 마스크 안에서 도 오랜 시간 미끈이 없는 촉촉함을 유지하며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듯한 글로 스킨을 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볍고 얇게 밀착되지만 높은 커버력으로 피부 결점을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동시에 여러 번 덧칠해도 두꺼워지는 현상 없이 자연스럽고 편한 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12g 6만9천원. 문의 02-6905-3747

샤넬 뷰티 울트라 르 뺨 쿠션 알고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에 밀착되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내추럴 한 커버가 가능한 쿠션 파운데이션. 여러 번 덧칠해도 뭉치거나 두꺼워지지 않고 오히려 피맛결이 한층 더 매끄러워지며 피부 톤은 균일하게 표현된다. 물기와 땀에 강한 워터 & 스팀트프루프 효과를 담았다. 9g 8만2천원. 문의 080-332-2700, www.chanel.com

디올 뷰티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 SPF 50 PA+++ 미세한 입자가 피부 결점을 하나하나 위주어 은은한 광채로 마무리하는 수분 쿠션.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매끈하게 연출되며 고급스러운 결장 피부를 완성한다. 디올 하우스의 헤리티지 코드를 담은 캐치루 패턴과 작은 파우치에 꼭 들어가는 울트라 슬림 케이스가치, 실용도 높은 디자인을 갖췄다. 14g 8만4천원. 문의 080-342-9500

자렌시 뷰티 행정관벨 블라썸 프레스시 페이스 크림 크림 핑크 베이스에 화이트 톤업 텍스처를 레이어한 쿠션. 메이크업이 답답할 수 있는 여름, 가벼운 톤업 베이스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다. 인젤리카 추출물과 비타민 C를 함유해 바르자마자 시원해지는 쿨링 효과와 촉촉한 보습 효과, 탄력 증진 효과까지 갖췄다. 12g 7만2천원. 문의 080-801-9500

맥 스킨디오 픽스 테크 맥트 파운데이션 크림 텍스처를 담은 맥트로 쿠션은 단점을 보완하고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살린 맥트형 파운데이션. 고농축 파운데이션 입자가 적은 양으로도 높은 커버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자석처럼 피부에 매끈하게 밀착되어 균일하고 뭉침 없이 깨끗한 피부 표현을 완성한다. 고 분자 하이투르닌을 함유한 포뮬러로 하루 종일 촉촉하고 편하다. 10g 5만2천원. 문의 02-3440-2782

몰채전기바나 뷰티 슬라 글로우 쉐시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피부 결점은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본인 의 건강한 광채를 되살려주는 수분 텍스처 쿠션 파운데이션. 바르자마자 상쾌해지는 효과로 피부 온도를 낮추고 하루 종일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한다. SPF 50+ PA++++의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로 강한 햇살과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갖췄다. 11.5ml 4만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선정

(우부터) 버티플라이 헬링턴 프라임의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인드니 바가텔로. 문의 02-545-2250. 골드 체인 아이링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01. 카프 스카과 필 소재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editor's Pick

여름 피부를 위한 향기롭고 촉촉한 스킨 & 보디 케어 솔루션. photographed by park kun woo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아네 루주 라튀네 #501립스틱에 진심진 에디터가 보자마자 찡찡 찰라. 하늘 이마 같은 레드 없는 붉은 물을 증강해듯 장맛빛 레드에 오랜 지킬라 반발음을 맡아드린 듯한 느낌의 레드 찰라다. 부드럽고 촉촉한 발림성과 영양 성분을 함유한 크림 텍스처의 라튀네, 그리고 미투에서 느껴지는 광택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3g 8만2천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정리윤

디올 뷰티 미스 디올 로즈 앤 로즈자스 헤어 미스트 정미 그리고 정미라는 이름처럼 풍성한 장미의 향과 생기, 생광까지 담은 헤어 미스트다. 폼을 한 후 불꽃만들이나 푸석해진 머릿결이 계속 신경 쓰였던 에디터의 고민을 날려준 제품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가볍고 달콤한 텍스처인데,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발에 풍부한 보습을 제공하고 윤기를 살려준다.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마다 솔솔 풍기는 기분 좋은 향기는 덤이다. 30ml 6만2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정리윤

스위스 퍼팩션 알메스-28 셀룰라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피부 진정과 탄으며 케어에 효과적인 아이리시 추출물과 화이트닝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미드 등을 이 상적으로 배합해 진하게 담은 앰플. 갈동하지 않고 피부에 골고루 흡수되며 보습 효과도 도 꽤 큰 편이다. 아황산염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이 한결 차분하게 정돈되는 듯한 느낌 6ml X 7ea 6만7천원. 문의 051-745-1202. by 에디터 이수지

상하이 피드백티브 솔루션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텍스처로, 바르는 순간 피부에 일은 보습감을 써온 듯한 느낌이 든다. 미처럼 부드럽고 각질 완화 효과를 담아서 그런지 피부가 즉각적으로 맑고 밝아져 보정되는 듯, 각질 제거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보통 자극적이라 까지는 편인데, 이 제품은 순하게 스며들어 민족. 100ml 12만9천원. 문의 070-4370-7511. by 에디터 정미연

블리 1803 알바니스톤 스킨 디퓨징 #1장 스킨에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리면 화이팅 백화과 마스크 향이 아우라진 플로팅 향이 은은하게 공기 중을 채운다. 루브르 박물관의 역적 유신인 엘 마르스를 담은 샤페리 케이스는 목걸이 이마를 풍기는 근사한 오브제가 되기도 한다. 11만8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이수지

아마다 뉴트리플리쉬 #111 컬 펄링 펄 헤어는 아마다 샤페리용을 위해 헤어를 저분하게 고장해줄 방법을 찾던 참. 이 제품을 발견했다. 살모넬라 함유하지 않았으며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한 비가-놈 제품이다 더욱 반가웠다. 샤페리용 후 머리 전체에 바르고 열마에 한 번 더 발라 샤페리를 잡아주니 하루 종일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ml 3만8천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정미연

조 라브스 프라센스 파인트리브러쉬 #포멜로 향기로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발상에서 영감을 받은 브러시형 폼폼. 폼폼으로 제품 뒤 바셀을 누르면 향을 담은젤 제품이 나온다. 유행하는 부위에 따르면 3초 안에 독특한 사용법이 인상적. 바를 때 피부에 닿으면 콜로이드가 느껴져 더욱 여름에 자꾸 손이 간다. 7ml X 2 건 9천원. 문의 02-3447-3600. by 에디터 정미연

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포솜 HOPE 에디션 2021 향의 우아한 몸짓으로 화려한 미래를 표현한 스페셜 패키징에, 기존보다 증량된 85ml 대용량으로 선보이는 제품. 영신한 수분 인피와 영양 성분을 한 병에 들뜬 담았다. 초미립자 리포솜 기술력 덕분인지 피부 깊숙한 곳부터 수분이 탄탄하게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85ml 19만5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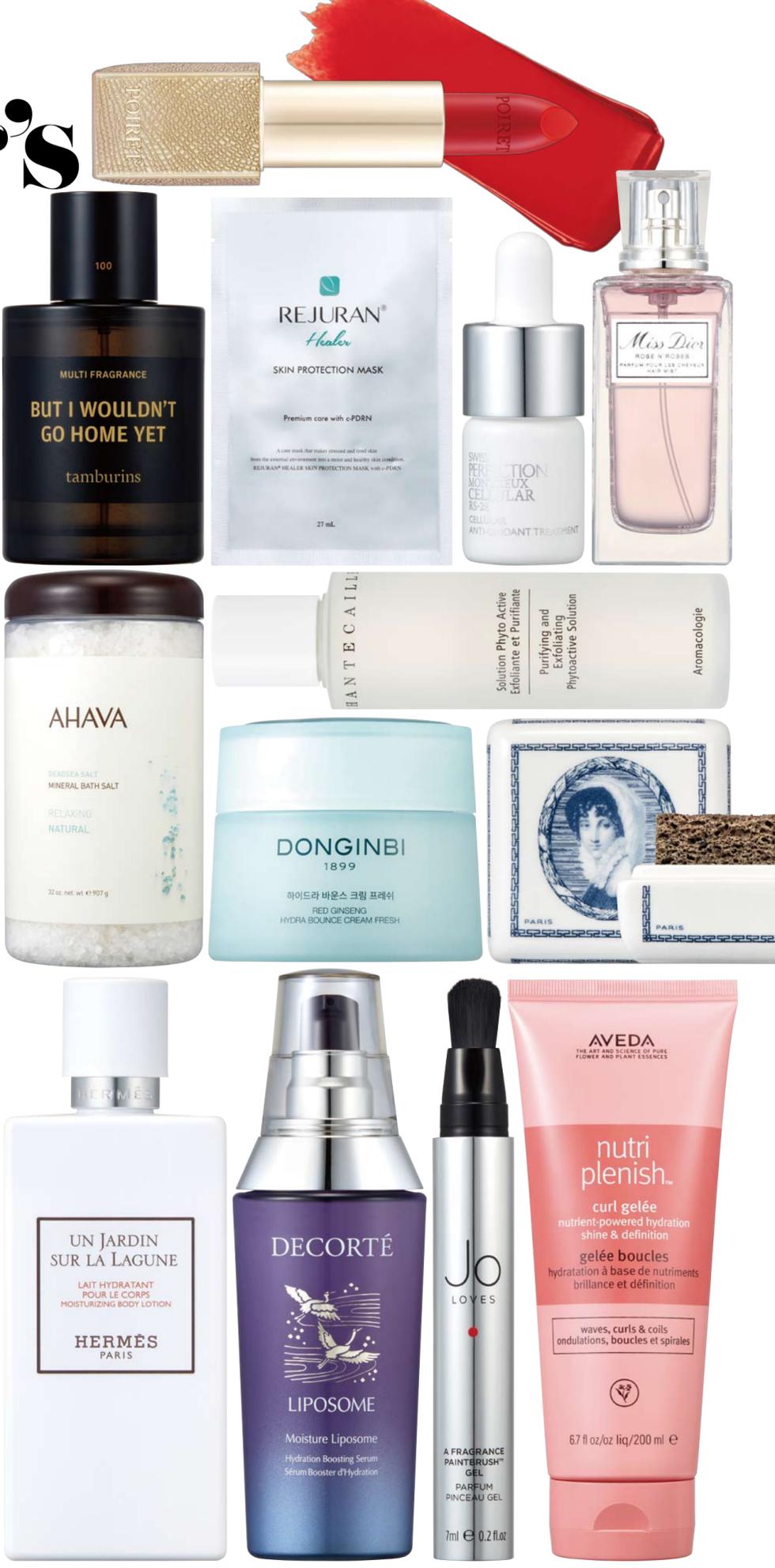
에르메스 온 자르맹 수리 라곤 모이스처라이징 비디옌스 보디로션은 보습과 영양은 기본이고,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해야 위 위에 뿌리는 향수의 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함께 에르메스의 퍼퓸 자르맹 수리 라곤의 향을 담은 제품으로 걸로 드러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은은한 플로팅 계열 향이다. 200ml 8만2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정미연

아비바 내추럴 사해 바스 솔트 사해 스킨 100% 천연 인공 제품. 빈센틴이나 죽육은 물론, 사워 젤에 1:1 비율로 녹여 걸쭉하게 만든 후 필름처럼 스며들기 필요한 부위에 마사주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에디터는 피부 세안 마크와 헬고 단계에서 물에 풀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사용하기를 한 달째. 피곤하면 스웨일 한두 개씩 올리오던 트러블이 감감무소사라 맑은 안색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307g 3만9천원. 문의 02-2135-7911. by 에디터 이수지

몽비 하이드라 바운스 크림 페이스 최상의 비율로 혼합한 총상 다량제와 하일부론 산이 수분감을 채워주고, 진정 작용을 돕는다. 가볍고 싼듯한 젤 제형으로 글세 미끄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바를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일뿐인데, 이는 피부 온도를 5°C나 낮춰주는 저온 추출 콜드진세놀 덕분이라고. 60ml 7만원. 문의 080-710-2304. by 에디터 이수지

탈라민즈 알프 프라그런스 BUT I WOULDN'T GO HOME YET 알한 파넬의 퍼플과 달의 미백이 분사되어 일품이다. 안개처럼 고운 입자가 온 구석구석 고르게 분사되어 온몸 전체에 자연스러운 향을 입힌다. 롱 스프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플러이드인 면도도 아주 마음에 든다. 이 향은 이름처럼 장스탑처럼 독특한 무드들 자아내는 느긋하고 유쾌한 향을 찾다면 강력 추천한다. 100ml 5만2천원. 문의 1644-1246. by 에디터 정미연

리쥘린 힐리 스킨 프로텍션 마스크 주입마다 캔틸과 아연을 줄기는 에디터의 일요일 저녁은 언제나 백으로 마무리된다. 이외 활동으로 지치고 예민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백으로 연어의 DNA에서 얻은 피부 개선 속진 성분을 담았다. 게다가 모공 크기의 1/670 사이즈 입자가 총총하게 흡수해 피부 근본까지 케어해준다 하니 더 믿음이 간다. 27ml x 5ea 2만8천원. 문의 031-8039-1453. by 에디터 정리윤



* 정미연은 2021년 10월 15일 촬영했다. * 에디터 정리윤은 2021년 10월 15일 촬영했다.

SHOWROOM

JEWEL & WATCH



43mm이 고수심 100m 방수 가능하며,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2056-0170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데미언 허스트 신작 공개 기념 때 현대미술재단에서 데미언 허스트의 신작 회화 '제리 블라섬'을 7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공개한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시로,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에르베 샹데스 관장과 작가가 함께 선정한 30점의 회화를 선보이며 본 전시만을 위한 2편의 영상을 전시 기간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1566-7277

디올 더 로즈디올 컬렉션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은 장미를 기념하는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장미의 아름다운 재료를 생생하게 담아낸 547점의 작품으로 구성했는데, 무수 디올이 가장 사랑했던 꽃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가 섬세한 최고급 젤스톤을 선택했다. 꽃병오리에서 상연에 올든 듯한 꽃잎까지 장미가 자닌 디테일과 우아한 색채를 구현했다. 문의 02-3480-0104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브레이슬릿 하드웨어 컬렉션은 현

대 여성의 우아하고 강인한 힘과 정신을 보여주는 컬렉션으로 뉴욕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와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중 링크 브레이슬릿은 볼드한 체인 링크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우아함을 모두 갖추었으며 티파니의 다양한 앵글 혹은 브레이슬릿과 레이어링하기에 좋은 제품이다. 문의 02-6250-8600

오메가 21세기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는 수심 10,934m까지 잠수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념비적으로 등장한 탐험가다. 그 모든 순간에는 오메가 '마스터 플랜트 오션 티타늄 크로노미터'가 함께했다. 올해 초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은 마우나케아 정복에 나선 여정에 다시 한 번 오메가가 함께했다. 그는 오메가가 정확한 시간 측정 장치이자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라는 극한을 이겨내지 않았다. 이처럼 오메가의 타임피스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기능을 증명해냈다. 문의 02-511-5797



불가리



IWC 빅 피아펄 워치 43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살린 다이얼과 원형 오토시리즈 크라운은 1940년대 군사 관측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사피어 글라스 케이스 백을 통해 자체 제작 칼리버 82100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스틸 케이스의 지름은 43mm이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또 스트랩 변경이 가능해 카프 스킨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스트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70-7363

프리드 뉴 부티크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가 국내에 흠 반배 매장을 잠시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 오픈했다. 소원도는 프레드의 트레이드마크인 핑크 골드 이치로, 내부는 리베라의 햇살을 떠올리게 모래 색상 바닥과 포스텐 케이스를 연상시키는 새 부티크로 꾸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보인 컬렉션과 헤리티지를 통합한 하나의 진정한 여정으로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문의 02-3213-2257

불가리 울트 파니시오 크로노그래프 GMT 스포티하면서 시크한 블루 스틸이 다이얼에 실버 키투어를 매치한 스틸 풀리싱 소재로 선보이는 '울트 파니시오 S 크로노그래프 GMT' 스틸 버전. 로마의 고대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형 울트라-신 디자인이 돋보인다. 케이스 지름은



IWC

BEAUTY



샤넬 울트라 롱 벵 쿠션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쉬운 여름철, 하루 종일 지속되는 무결점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유연한 메시와 탄력 있는 스펀지가 만난 혁신적인 더블 레이어 패키지로, 파운데이션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콤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핸드백 속 타이밍 아이템으로도 손색없다. 문의 080-332-2700

꿈한 클렌징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불순물을 제거해 벨벳처럼 매끈해진 피부도 느낄 수 있다. 땅기 없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무리감 또한 장점이다. 문의 080-342-9500

에스티 로더 수프림+ 컬렉션 피부도 자치는 여름, 스카incare 첫 단계부터 영양과 진정 효과를 선사하는 스키템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울타미징 파워 트리트먼트 로션을 출시했다. 농축 하이드로콜로이드와 모링가 추출물을 함유한 멀티 액션 포뮬러가 피부 속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 본연의 보습 능력을 끌어올린다. 문의 02-6971-3212

메종 마르자벨라 프라그런스 플레그십 스토어 메종 마르자벨라 프라그런스가 7월 2일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와 함께 7월에 새롭게 출시하는 미차 메디테이언 프라그런스는 햇빛이 드는 오후 집에서 따뜻한 미차 한잔을 마시고 보내는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을 느끼게 해준다. 문의 080-363-5454



조르지오 아르마니 남성 캔버스 쇼퍼 백 2021 S/S 시즌 로고 그래픽 남성 캔버스 쇼퍼 백을 선보였다. 손잡이와 포켓 입구에 레더 소재로 배색 효과를 더했고, 히든 포켓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까지 갖췄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오피스 룩이나 리프트 룩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색상은 네이비와 크림 컬러, 2가지 버전으로 출시했다. 문의 02-310-1704

구찌 할리우드 포에버 아이웨어 캠페인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할리우드 고전 배우들의 매력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크리스털 장식 이 화려한 아이웨어 에디션에 디자인했다.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외하고 세이프와 장식에 집중한 이번 컬렉션은 과감한 볼륨감으로 구찌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모든 제품의 크리스털 장식은 섬세한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문의 02-3452-1921



보테가 베네타 워드롭 02 팝업 스토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분더샵 청담점에서 2021 프리폴 컬렉션 워드롭 02를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를 7월 4일까지 오픈했다. 다양한 레디투웨어, 슈즈, 핸드백 등을 소개하는데, 새로운 마운트 핸드백의 콤팩트 컬러를 이스클루시브 아이템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7601

살바토레 페라가모 랫츠 덴스 컬렉션 페라가모에서 여성을 위한 새로운 컬렉션 슈즈 컬렉션을 출시했다.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는 랫츠 덴스 컬렉션의 본질로 슈즈를 신고 춤을 추기에도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춤과 페라가모 슈즈의 상징적인 대화를 그린 단편영화는 2019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유명 영화감독 다니엘 레스비츠가 연출을 맡았다. 한편 커뮤니티를 위한 덴스 챌린지를 틱톡 채널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3430-7854



FASHION

사유의 바다, 치유의 숲

SAYU & CHIYU
思惟 治癒

“어떤 인간도 섬으로 살 수 없다”는 유명한 기도문 구절이 새삼 와닿는 요즘입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며 격리나 봉쇄나 하는 단어가 활개를 치자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행보가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었다고, ‘소확행’이 따로 없다고 많은 이들이 입이 아프도록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작금의 팬데믹 사태는 우리를 하여금 ‘고독’을 둘러싼 긍정적인 면면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체면치레나 가식 같은 영혼의 거저데기를 벗어 던지고 나 자신에게 무엇이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기는 ‘홀로움’의 미학에 대해 말입니다. 실제로 홀로 지내기를 예찬하는 이들은 코로나19로 누리는 고독을 고마운 선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독이 창의력 증진과 내적 치유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이러한 효용을 얻으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거리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고 합니다. 고독 속에서 ‘사유의 바다’를 헤엄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지요. 미술을 통한 사유도 괜찮은 치유책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로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는 “미술은 현재의 상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 ‘Art+Culture’ 스페셜호에서는 ‘사유’ 속의 치유, 치유 속의 사유라는 주제로 여러 결의 예술 콘텐트를 다뤄보았습니다. ‘인생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라는 프랑스 사상가 라 브뤼에르의 명언을 되새기며, 본질에 집중하는 사색을 통한 치유의 여정을 떠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글 **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Soul Mending

고약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지 않았더라도 인간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욕망이 커서든, 분노가 터져서든, 우울이 깊어서든 저마다 고단한 삶의 순간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란 존재하기 힘들지만, 각자의 아픈 부위나 치유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치유를 바라보는 미술의 시선도 다채롭다. '고독의 위로' 같은 일상 산책에서 건진 '물입의 산물'을 그림으로 녹여내기도,

자연과의 공존을 앗아가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을 강렬한 디지털 영상에 담아내기도 하며, 역사적 비극이 개인의 트라우마로 이어진 애달픈 상흔을 과거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보듬는 작업을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이기도 한다.

또 원대한 꿈을 향한 인간의 야망 어린 몸짓과 그 같은 노력의 무의미함을 아름답게 풀어내는

'영상 시인'도 눈에 띈다. 4인 4색, 그 치유의 여정을 따라가보자.



1

빈우혁 Bin, Woo Hyuk

숲속의 고독

● 독일어 'waldeinsamkeit'(발트아인잠카이트)는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다. 이는 숲속에 홀로 있는 듯한 감정을 의미한다('wald'는 숲, 'einsamkeit'는 고독으로 번역한다) 자연에 인격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는 의미다. 이는 어떤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지만 독일인들은 "나는 푸른 waldeinsamkeit 속으로 사라졌어"라고 말할 때 마치 실재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한다.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어떤 것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오묘한 '숭고'의 경험처럼, 이는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다른 감각에 반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사람이 빈우혁에게는 불인간의 근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베를린에서 생을 마감한 유명한 그림 형제의 우화인 (그림 동화를 생각해볼지), 'waldeinsamkeit'는 회복적 상태를 의미한다.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되레 불인간이 사그라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작가에게 베를린의 공원과 숲을 가늠고 탐구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게기가 됐다. 그리고 그림은 더 많은 산책, 더 많은 산책은 또 더 많은 그림을 낳았다. 베를린 풍경 시리즈가 된 작품은 전적인 물언의 결과물이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회화 자체가 확장적이고 몰입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 어쩌면 빈우혁 회화의 기저에는 어디가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찾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딘가 잘못된 의식의, 혹은 걸로 보이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여러 기저에 대한 방황각기를 상실하는 양기적인 즐거움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결국 가장 좋은 예술이 아닌가?

글 **에이미 샐록**(Amy Sherlock, 미술 비평가 · 프리즈 매거진) 부편집장



2



3

1 Promenade 113(2021), 라틴에 유채, 130 X 160cm, 이미지 제공: 갤러리부론
2 Sanctuary 104(2021), 라틴에 유채, 160 X 190cm, 이미지 제공: 갤러리부론
1, 2 서울 한남동에 자리한 갤러리부론에서 오는 7월 23일까지 열리는 빈우혁 개인전 (프롬나드Promenade) 출품작들.
3 Wei Benseer Park 66(2017), 캔버스에 유채, 193 X 259cm, 이미지 제공: 갤러리부론

염지혜 Yeom, Ji H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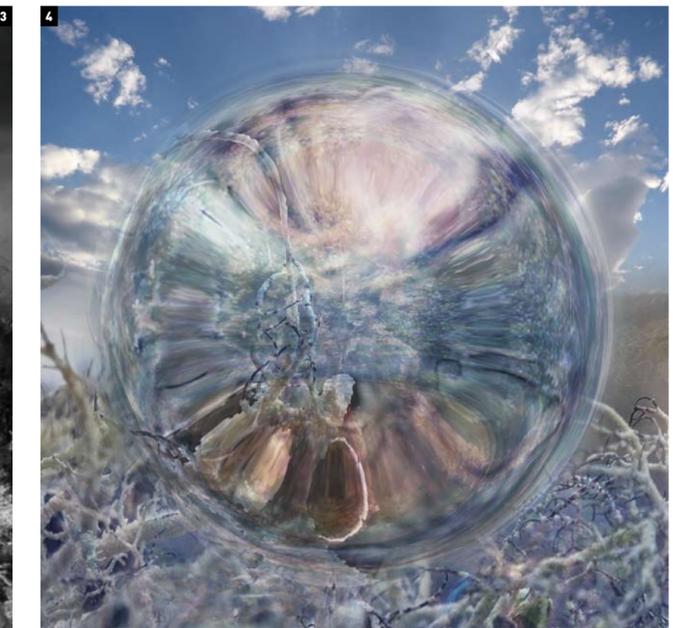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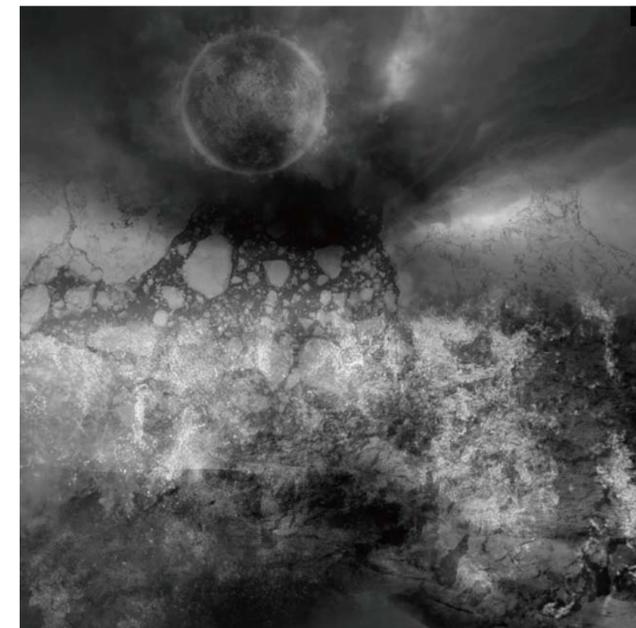
'공존'을 향한 제안

● 지구의 생식을 무한히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은 지구에 대한 착취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지구와 인간의 대립 구도가 결국 현재의 재난을 초래했다는 인류세적 세계관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다. 동시에 현 상태를 성찰하고 지구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촉구한다. 염지혜는 지구라는 타자와 인류의 공생, 공존에 대한 관심사를 강렬한 3D 디지털 영상으로 선보여왔다. 그의 작품은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한 인간 중심주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이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으로 지구를 망가뜨리는 현 세대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예술가적 상상력과 자기 고백을 교차시킨 작품들이 눈에 띈다.

●● 검은 태양(2021)은 인공과 지구가 태초에 이었던 균형, 즉 빙하시대의 평화와 대조적인 현재의 기후 위기와 남극을 향한 각국의 암묵적인 정치 대립을 사출한다. 작가가 직접 2018년 남극 세종 기지를 방문해 촬영한 영상에는 막연히 상상하던 아름다운 빙하 외에도 온순 살비와 칸타이너 박스 같은 개발의 상징이 등장한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수많은 조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배경으로 인간의 귀 구조를 형상화한 3D 이미지가 부유한다. 귀는 인체의 평형추를 담당하는 동시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통로이기도 하다. 국가 간 정보 선점을 위한 첨예한 정치적 대립의 무대에서 남극 과학 기지의 모습을 새롭게 부각하는 것이다. 검은 태양이란 제목은 개기 일식 현상을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 일식을 두려워해 천문학자들을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는 일화를 교차시키며, 과학에 대한 신뢰가 어찌된 신뢰와 같은 것은 아닌지, 인류가 당장의 이득을 위해 근원적 가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한다.

●●● 작가가 연작으로 제작한 검은 태양 X: 캐스퍼, 마녀 그리고 물구나무종(2021)은 전지구적 기후 위기와 감염병 재난을 뉴스 속 스포트라이트로 소비하는 우리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인간의 전환과 회복을 위한 재탄을 간다. 고대에 제안으로 여겨졌던 검은 태양, 즉 개기 일식이 단지 우리 눈에 태양이 잠시 가려져 보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라진 태양을 다시 느끼기 위해 몸의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거꾸로 보다면 가려진 태양의 빛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지구 중심, 생명 중심으로 재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은 물구나무서기(거꾸로 보)를 제안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옮기기를 창한다. 인간의 상상력과 유연함으로 재탄을 다시 보고, 그렇게 재탄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제안이다. 기후 위기는 현실의 타계와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구덩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글 **채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 검은 태양 X: 캐스퍼, 마녀 그리고 물구나무종(2021), 단채널 영상, 시운드, 19분,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론과 치유) 전시 출품작. 2 검은 태양 X: 캐스퍼, 마녀 그리고 물구나무종(2021), 단채널 영상, 시운드, 19분, MMCA 서울 (여론과 치유) 출품작. 3 '싱비오플롯(Symbiplot)'(2020), 단채널 영상, 시운드, 20분,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토크아틀리움)2021, 송은아트스페이스 (Artists Take-Over Part 2: ~)(2021) 출품작. 4 '싱비오플롯(Symbiplot)'(2020), 단채널 영상, 20분, 이미지 작가 제공



Exhibition Concept 2021

호 추 니엔 Ho Tzu Nyen

기억과의 화해

- 캄캄한 방, 거대한 스크린 2개가 마주 선 채 이스라엘 불꽃을 피워낸다.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성이 노이즈 음악을 배경 삼아 엄숙한 곡조를 뽐아낸다. 화면이 점차 밝아지며 햇빛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비춘다. 뜨겁게 외치는 함성과 불길이 교차되며 혁명은 피로 물든다. 바삭 말라버린 분수대를 둘러싼 자항의 햇빛은 추모와 위로의 촛불이 된다.

- 상가표르 작가 호 추 니엔의 애니메이션 설치작 '49번째 노래(2020)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영화, 기사 사전을 제작 자료로 삼았는데 실제 제작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숨 쉬는 스크린 스튜디오가 맡았다. 이는 북한을 암시한다. 북한은 해외에서 수주한 예술 작품이나 상품 제작도 모두 검열한다. 그 결과 특정 시대나 지역을 알 수 없도록 차라하면서 오히려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됐다. 북한과의 미스터리한 협업은 역사를 다시 보고 화해를 시도하는 동시에 분열된 2021년 한국의 현실까지 담아내며 작품에 다층적인 의미를 더한다. 보컬리스트 백현진과 빈현희가 부른 두 주제곡은 실험 음악가 류한길의 리믹스를 통해 엮였다고 고쳐된다. 이들은 혁명을 상징하는 '혁명'을 담은 고대 점술사이자 철학자(주역)의 49번째 노래에 대한 풀이를 노래하며 폭력의 트라우마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인을 갱신한다. "양상이 바르고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다. 덕을 지닌 사람은 역사의 질서를 바꾸고 시대의 의무를 밝힌다. 결단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 한편 작가는 자신이 속한 동남아시아 역사의 복원을 꾀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종교도, 언어도 전혀 다른 국가들로 이뤄져 있지만, 20세기 초엽 세계대전 때 일본 연합군의 지배를 받으며 한 권역으로 묶인 범주화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쓰고 3백60도도 관찰할 수 있는 그의 애니메이션 작품 '울림을 위한 R/R for Resonance'(2019)은 동남아시아에서 고대부터 두루 쓰여온 약 7인칭의 기원을 좇으며, 장의 울림을 분절된 동남아 역사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모델'로 바라본다. 호 추 니엔은 "우리 눈은 한쪽 면만 볼 수 있어 결코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없다. 기겁고 먼 것, 앞과 뒤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날로 악화되는 정치적 분열과 확장 현황 사고를 '자유'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글 채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



2

1~4 '49번째 노래(2020), 2채널 영상, 2.1 채널 사운드, 2개 스크린, 제13회 광주비엔날레(2021) 출품작. 이미지 작가 제공



3



4



'Nummer Acht(No. 8),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2007), HD 비디오, 10분 10초, 보트-이안, 핀란드, 부상사립미술관 기획전 (이토록 아름다운(2021), 송은아트스페이스 (Guido van der Werve: Trials and Resurrections)(2020) 출품작.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 제공, 송은아트스페이스

휘도 판 테어 베르베 Guido van der Werve

무의미의 아름다움

- 허황된 화면 속에 육중한 몸집의 배가 등장한다. 핀란드 연안의 공공 예술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쇠철선. 배 앞에는 검은 실루엣의 남자가 홀로 걸고 있다. 무심히 얼굴을 깨부수며 움직이는 쇠철선의 뱃머리보다 겨우 몇 걸음 앞서 있는데, 일정 거리를 두고 망원렌즈로 촬영한 이 영상에서 인물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힘겨워하는 듯 느껴진다. 그래도 타협하면 행보를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은 작가 자신이다. 느린 듯 무감각하게 뒤따라오는 배를 등지고 허겁지겁 걸고 또 걷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변화 없이 10분 10초가 흐르는 영상의 제목은 'Nummer Acht(No. 8),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2007).

- 망망대해의 부사자는 얼음 위에서 위태롭게 걷는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 대자연과 기술에 둘러싸인 채 분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사색을 해온 휘도 판 테어 베르베는 특유의 관조적인 시선으로 일종의 모험을 걸었던 '스펙타클'을 시적으로 바꾸려한다. 대개 무모 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시련을 주거나 인간성을 쓰며 한계에 도전하는 모험이다. 거대한 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투쟁은 송곳미를 느끼게도 하지만, 서사 속 영웅 같은 기쁨은 묻어지지 않는다. 모험론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첨' 듯 따라오는 쇠철선 앞을 걸으며 자신의 발 앞에서 얼음이 쪼개지는 것을 보거나 24시간에 걸쳐 북극에 서서 추위를 견뎌내려 애쓰는, 매번 검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주인공은 스스로 부과한 중압감에 시달리며 세상을 홀로 떠돌는 존재일 뿐이다.

- 자연을 내려다보는 인간 중심적 근대성에서 벗어난 작가는 완벽한 꿈을 품은 채 달려가는 '수교로움'에 대한 찬사를 건네거나 자질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저 담담히 지켜본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는 클래식 음악과 퍼포먼스, 진지한 표정으로 구사하는 데드팬(deadpan) 유머를 전복하는 그의 영상 작업은 노력의 무의미함을 얘기하지만, 외려 그게 위트가 되는 것도 같다. 어떤지 무의미를 말하면서도 지독한 회의나 냉소를 뽐아내지는 않았던, 건조하지만 부드럽고 따스한 시선을 지녔던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글 고성연(스타일조선닷컴) 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1 지난 5월 한달 간 서울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전영민을 뒤덮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신작, 2 도쿄 신주쿠 유니카 비전(Yunika Vision)에서 상영하는 CIRCA 프로젝트, 3 런던의 옥의 전영민 '피카딜리 라이트(Piccadilly Lights)'에서 펼쳐지는 CIRCA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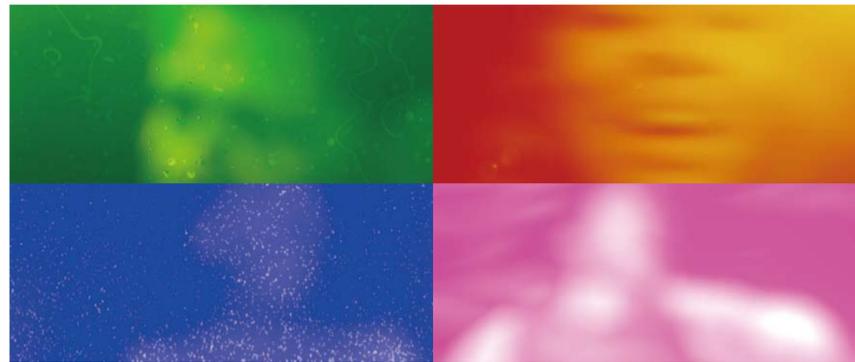


CIRCA 프로젝트

공공 미술, 도시 속 계절을 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국경의 단절로 순식간에 세계화 흐름을 역행하는가 싶더니 이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을 예고하며, 디지털 시대의 혁신 속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미술계도 온라인 뷰잉룸, VR, 라이브 전시 투어 등 비대면 방식을 발 빠르게 안착시키고 있다. 물리적인 전시가 열리더라도 이젠 '관람객 수가 제한되고 휴관과 예약제 운영을 번갈아하며 재개관을 반복하던' 국공립 미술관의 행보가 일상이 됐다. 그런 와중에 '언택트'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된, 다자가 힘을 모아 대중에 위로를 건네는 흐뭇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서울을 비롯해 세계 5개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CIRCA 프로젝트다.

지난 5월 1일 저녁, 현존하는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손에서 탄생한 '봄날의 노래를 알리는 신작'이 서울 하늘을 물들였다. 태양 혹은 죽음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음을 기억하리라는 2분 30초짜리 영상으로 일명 '해돋이 애니메이션'이다. 해 질 녘의 길거리에서 일출을 바라본다는 호크니의 발상은 오랜 팬들에게 지친 많은 이들의 갑판 어린 호응을 자아냈다. 이렇듯 공공장소에서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행보를 주도한 CIRCA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암울한 코로나 시대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듯 영국 런던에서 시작했다. 런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옥의 전영민 '피카딜리 라이트'와 온라인을 통해 팔방미인 예술가 패티 스미스(Patti Smith), 중국 작가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같은 문화 예술계 거장을 위시해 유망주, 신진 작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디지털 아트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화제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 그러다 올들어 호크니와 함께한 5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뉴욕, 도쿄,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5개 도시에서 같은 작가의 디지털 아트를 감상할 수 있게 된 것. 한국에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2021년을 본떠 20시 21분 도시의 표준시간 매일 동일한 시각에 상영을 시작한다.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의 커다란 기억(1) 자 전광판은 디지털 아트 캔버스이자 아이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주로 짧은 분량의 상업광고가 상영되던 스크린은 2분 30초 동안 대중과 예술의 소통을 꾀한다. 매달 다른 아티스트를 섭외해 2021년의 세계를 반영한 신작을 공개하는 '달나의 미술'은 더불어 사는 삶에 예술적 사유를 기미한다. 호크니의 뒤를 이어 지난 6월 한 달에 걸쳐 소개된 작가는 미국 출신의 니키타 게일(Nikita Gale). 'Rain', 'Heat', 'Blizzard', 'Fog' 등 네 작품을 돌아가면서 선보인 니키타 게일의 영상 시리즈는 국가 간 여행길이 닫히고 크고 작은 대면 공연이 중단된 상황에서 날씨의 변화, 계절의 흐름을 직시하도록 관객을 초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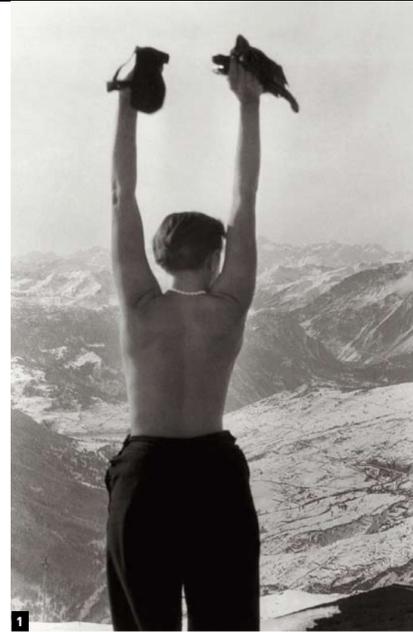


'Rain'(2:20)에서는 무대에서 미끄러져 물웅덩이를 밟는 듯한 사람 너머로 빛물이 흘러내린다. 가수 스스로 노래가 만족스러우지 않게 될 것이고 미소 짓지 못하니 노래를 이어간다. 그런가 하면 'Heat'(2:28)에서는 무대은 사막 위를 배회할 법한 열기가 그대로 그려지고 애처로운 손짓과 곁들여 역시 노래를 하는 듯하다.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열기에 휩싸여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노래하는 이가 자신의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모습은 이완하면서도 산뜻히 펼쳐진다. 그에 비해 'Blizzard'(2:28)는 휘몰아치지 않고 고요하다. 누군가 사람의 얼굴이 때로는 윤곽조차 흐릿한 해를 형상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주인공의 어깨도 점점 줄어드는 눈보라와 함께 흔들린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너머를 보고 이야기 해주는 듯하다. 얼굴 형상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안개에 뒤덮인 'Fog'(2:21). 이번에도 한 여인이 한껏 흥이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왼손에는 마이크를 든 채 노래한다. 그녀의 오른손은 계속해서 관객을 의식한 듯 두자루만 움직이고 있다. 가수의 움직임이 들리는 대신 음울을 가늠할 수 없는 전자음악이 서서히 무대를 장악한다.

사실 니키타 게일의 영상에서 노래하는 인물의 모습은 대형 전광판에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저 뿌연 화면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다가 휴대폰, 또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았을 때 비로소 형상이 눈에 들어온다. 디지털 매개체를 통해 바라보는 시선을 위한 작품이기도 한 셈이다. 어느덧 비대면이 아닌 공연다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지 햇수로 2년째. 오늘도 뉴스 헤드라인에는 코로나 사망자 수와 백신 접종 뉴스,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난무하는 사이 CIRCA 프로젝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세계를 연결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공공 미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안한다.

CIRCA 프로젝트는 향후 밀라노와 마드리드에도 뻗어나가며 글로벌 프로젝트로서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다져나갈 전망이다. 7월에는 영국 출신 큐레이터 노먼 로젠탈(Norman Rosenthal) CIRCA 위원장이 선정한 젊은 작가들의 그룹전, 그리고 8월에는 바르작 서울, 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 선정한 한국 작가 전소정의 작품이 전 세계로 송출된다. 땅거미 내려앉은 여름날 저녁, 코엑스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예술을 일상으로 떠나는 여정의 동반자로 삼아보면 어떨까. 글 **한지혜**(이화여대 Art & Luxury Business MBA 겸임교수)

ONLINE CIRCA, NHK 전영민아트



베니스와 런던을 수놓다

샤를로트 페리앙의 미래 지향적이고 따스한 건축적 시선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이라는 20세기 디자이너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놓은 혁신에 비하면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건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근대건축의 선구자를 꼽아보라고 하면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데어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발터 그로피우스 등 거장들의 이름을 떠올리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릴리 라이히, 아일린 그레이, 샤를로트 페리앙 같은 여성 대가들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수십 년이 넘는 시간 차가 존재한다. 샤를로트 페리앙은 요 몇 년 새 재평가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물이다. 지금 베니스,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통해 인류에 충만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시선이 깃든 그녀의 작품 세계를 엿본다.

르 코르뷔지에라는 거장의 조수 정도로 알려졌던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은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던 어떤 거장에도 뒤지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근대성을 가지고 디자인·건축계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온 선구자였다. 안타깝게도 당대 최고의 알티미던 르 코르뷔지에조차 그녀를 처음 만난 날 "어는 쿠션에 수놓는 데가 아니라며 돌려보냈을 정도로 여성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시대적 상황에서 길을 헤쳐 나가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간 디자이너이자 실험적인 건축가,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행동가였던 그녀가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흐름 속에서 가치를 꾸준히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그 물꼬를 트 계기는 2019년 프랭크 게리의 전위적 건축물로 유명한 피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전체 공간을 할애해 개최한 대규모 샤를로트 페리앙 회고전이었다. 건축에서 디자인,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탐구와 열정을 기린 이 전시를 자릿대 삼아 페리앙은 점차 수면 위의 존재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에서도 페리앙의 사진과 기구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 올해는 유럽에서 전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이 운영하는 베니스의 전시 공간 에스파스 루이 비통(Espace Louis Vuitton)에서 진행 중인 (Charlotte Perriand and I. Converging Designs by Frank Gehry and Charlotte Perriand) 전시, 그리고 최근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막을 올린 (Charlotte Perriand: The Modern Life) 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21 비엔날레 건축전이 열리고 있는 베니스에서 빌모테(Wilmotte) 재단이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사나(Cassina)와 함께 재구축한 레퓨주 톤노(Le Refuge Tonno)는 창의적 재능과 인간에 대한 애정인 것 등 '유목 건축'의 시제로 눈길을 잡는다. 샤를로트 페리앙이 당시 그녀의 동료이자 연인이던 피에르 조노와 함께 설계한 이 유목식 가전제품(1938)은 제한된 환경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간과 도구에 대한 디자인으로, 르 코르뷔지에가 추구했던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표현을 오려낸 그의 어떤 건축물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양철로 만든 우주정자정자형 생긴 레퓨주 톤노는 샤를로트 페리앙이 1937년

크로아티아에서 찍은 사진 속 화전목마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다. 스카틀랜드의 산에서 임시 거주지를 세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식 가전제품로 각각의 패널 모듈이 40kg 미만으로 가벼워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조립·분리하고 이동할 수 있다. 1층의 잠이신 침대 2층의 2층 침대를 비롯한 침대 6개로 8명의 인원이까지 수용할 수 있고, 4차식 침실에서 영감받은 가죽 줄을 이용해 접고 펴는 방식으로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한껏 높인 이 건축물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빠른 기동성이라는 새로운 거주 방식의 제안이기도 하다. 작은 공간이지만 조도도 할 수 있는 간이 부엌이 있는데, 눈 녹은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동이 설치된 나무 소재의 작업대, 중앙의 등고 철제 기둥 안에 설치되어 공간 효율을 살린 난로 등 세심한 설계와 요소가 단연 돋보인다. 환경 친화적인 나무 소재와 더불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이라는 신소재의 활용까지, 레퓨주 톤노의 면면을 보노라면 근대적 주거 환경 실현의 정점에서 그녀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상류층을 위한 장사적 거주 공간의 설계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환경에서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공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포용적 사선도 느껴진다. 이처럼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스며든 그녀의 유목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전혀 여색하지 않은뿐더러, 남극이나 사막의 연구 기지 등의 규정이 될 정도로 미래적인 면모가 배어 있어도 하다. 미래에 펼쳐질 삶의 방식에 대한 호기심과 개척은 언제나 청초적인 사람들의 뒷안이고, 어쩌면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이 과거에 그들이 어떤 미래를 상상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인간과 환경, 기술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본 샤를로트 페리앙의 선견지명은 오늘날의 디자인과 건축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 우리는 이미 그녀의 생각이 녹아든 일상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봄새와 재워일 일상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에, 그녀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한정된 거주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 레퓨주 톤노가 시사하는 바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베니스에 재방문이 역사적인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보고 싶을 따를이다. 글 **한지혜**(디자인 비평가 · 이화여대 겸임 교수) 기획 **고성연**



1 1930년으로 추정되는 시에 20대의 젊은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이 프랑스 알프스산맥을 건너 사막 지역의 산에 올라 나무의 반으로 구두를 벗어 트레 힐을 하고 있다. Archives Charlotte Perriand_ADAGP 이미지 제공, 카사나(Cassina) 2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Charlotte Perriand: The Modern Life) 전 풍경. Double chaise longue, 1952 Charlotte Perriand (Cassina) with two Akari (light) pendant lamps, c.1958, Isamu Noguchi and them Nuage (Cloud) bookshelf, Steph Simon edition, c.1958, Charlotte Perriand (both Galerie Lallanour - Downtown, Paris) Photo by Felix Speller, 이미지 제공, 런던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 in London) 3 2021 비엔날레 건축전이 열리고 있는 베니스에서 빌모테(Wilmotte) 재단이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사나와 함께 재구축한 레퓨주 톤노(Le Refuge Tonno)의 외관. 샤를로트 페리앙이 피에르 조노와 함께 설계한 유목식 건축물(1938). © Fondation Wilmotte, ph. Alessandra Chermolo 이미지 제공, 카사나 4 피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전시장 내에 설치된 레퓨주 톤노의 내부 모습. Installation view,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 October 2 2019 - February 24 2020 © Adago, Paris, 2019 © Fondation Louis Vuitton / Marc Domego.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미술 시장의 지각변동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미술 시장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암담해 보이기가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발이 묶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주요한 아트 페어나 경매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여전히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고전하는 시장도 있지만, 순풍이 분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특히 한국은 작년과의 온도 차가 뚜렷한 시장이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열린 아트 페어나 경매는 저마다 빼어난 성적을 자랑하고 있고, 내로라하는 글로벌 갤러리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입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또 삼성가의 역대급 미술품 기증으로 대중의 품에 안기게 된 '이건희 컬렉션'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MZ 세대의 투자 열기, NFT 열풍 등이 맞물리면서 슬슬 '과열'과 '거품론' 얘기까지 나올 만큼 시끌벅적한 미술계는 팬데믹을 계기로 커다란 변혁의 장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 '육식 가리기의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미술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해 시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자본 시장과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넘어온 지금의 흐름이 국내외 미술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미술 시장의 갑작스러운 활황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여전히 미술 시장의 규모는 작는데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활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힘든 한 해였다. 미술계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를 비롯해 유수 경매업체들은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에 주요 오프라인 경매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 결과, 작년 글로벌 경매 시장 규모는 UBS와 아트 바젤에서 발간하는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1백 76억달러(한화 약 20조원)를 기록했다. 경매뿐 아니라 아트 페어 등 미술품 거래 플랫폼이 대부분 타격을 입었다. 당연히 글로벌 미술 시장이 받아 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2020년 세계 미술 시장 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5백억 달러(한화 약 55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난파선만 잔뜩 쓸아질 듯했던 팬데믹의 격랑 속에서도 미술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돋보였다.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술 시장에 지난 한 해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난 해도 없었던 것 같다. 글로벌 경매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해 경비 절감에 나서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난관을 돌파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온라인 세일의 강화와 하이브리드 세일(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매의 장점을 살린 경매)의 도입이 그 승부수였다. 아트 바젤을 위시해 주요 아트 페어들도 일제히 온라인 판매에 소매를 건어붙였다. 지난해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비해 무려 2배 수준으로 경증 뛰면서 25%를 차지하게 됐다(출처 UBS 'The Art Market 2021').

위기 속에 싹튼 기회는 장? 아니면 다시 과열의 도가니로?

지난 15년간 글로벌 경매 시장을 돌아보면 눈에 띄는 큰 위기가 두 차례 있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혹독한 불황을 겪은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린 2020년이 꼽힌다. 그런데 최악의 불황기였던 2009년 1백 85억 원 규모를 기록한 순수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10년 단숨에 2백76억 달러로 커지면서 거꾸로 회복했다(출처 UBS 'The Art Market 2018'). 팬데믹이 초래한 작금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상황만 보더라도 2019년에 근접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의 양상은 좀 달랐다.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07년 정점을 찍은 이래 2015년 단색화 열풍이 불기까지 무려 8년 동안 장기 불황에 허덕였다. 단색화 열기에 힘입어 2015년부터 4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2019년과 2020년에 다시 꺾이는,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현 상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핫'하다는 표현이 들어맞는다. 글로벌 경매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은 작년 말부터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시중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다. 자본 시장과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넘어온 지금의 흐름이 국내외 미술 시장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미술 시장의 갑작스러운 활황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여전히 미술 시장의 규모는 작는데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활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내 미술 시장의 호황도 풍부한 유동성에 바탕을 뒀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억제함에 따라 일부 자금이 미

술 시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더 탄력을 받았다. 지금의 풍경과 꽤 닮은 구석이 있다.

K-아트, 아직은 먼 글로벌 브랜딩의 여정
 하지만 2007년 국내 미술 시장에는 거의 모든 작가의 작품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제히 치솟은 반면 현재의 상황은 좀 다르다. 학습 효과 덕분일까? 해외에 미술 시장의 기반을 둔 작가, 특히 단색화 작가 위주로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경매에서도 한국 단색화 작가에 대한 컬렉터들의 국제적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단색화 작가들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미화 1백만달러에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지라 글로벌 관점에서 예술적인 성취도를 따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국제 무대에서 1980년대, 1990년대생 작가들이 소위 '밀리언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일은 이미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해져야 때문이다. 최근 홍콩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보면 이젠 동남아시아 미술도 시장에서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 미술은 최근의 가파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마이 쑹투(Mai Trung Thu)라는 베트남 1세대 작가의 작품이 지난 4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3백만달러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또 5월 크리스티 홍콩의 하이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브닝 경매에서는 출품작 총 75점 중 동남아 출신 작가 작품이 8점이 나왔다. 반면, 한국 작품은 감장열 화백의 작품이 유일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콩 경매에서는 곧잘 동남아시아 미술을 별도 세션으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한다. 작가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인지 새삼 깨닫게 한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다. 2010년과 2011년 떠난 출장 길에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우연히 반가운 작가들의 전시회를 보게 됐다. 한 분은 나라 요시모토였고 한 분은 한국 작가였다. 나라 요시모토는 아이를 소재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자신만의 독창적 영역을 개척한 작가로 막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키네틱 조각을 하는 한국 작가 역시 그만의 독창적 조형언어로 세계 무대에서 관심을 끌던 초기 단계였다. 이후 나라는 세계적인 갤러리 페이스(Pace) 전속 작가가 되어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고, 지난해엔 미국 서부의 주요 미술관인 LACMA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2010년 경매에서 5억 원대 중반에 낙찰됐던 그의 작품은 이제 1백50억 원에 거래될 정도다. 한국 키네틱 작가의 가치가 꼭 '가격'으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엄연한 시장의 논리로 보자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

프리즈 아트 페어와 세계적 갤러리들의 서울 입성, '아트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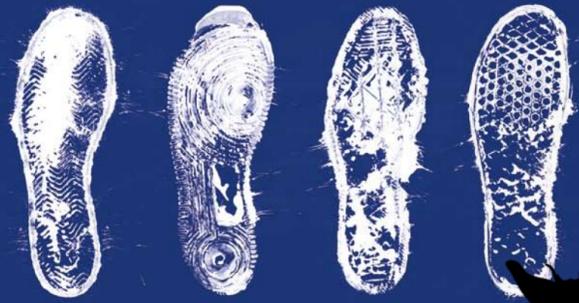
최근 거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홍콩은 여전히 뉴욕, 런던과 함께 글로벌 미술 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콩의 경쟁력을 꼽자면 무관세 같은 세계의 이점, 영어가 가능한 풍부한 인적자원, 금융 인프라, 그리고 아시아 허브로서의 지리적 장점 등이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 미술 시장의 존재감은 아직은 훨씬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미술 시장이 전후 서

양 현대미술과 21세기 현대미술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마침 페이스를 위시한 글로벌 화랑들이 전 공간을 확장하거나 새로 입성하는 등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소식이 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즈 프리즈(Frieze)가 KIAF와 손잡고 내년 9월에 서울에 진출한다는 소식 또한 들린다. 미술 시장의 거점 다변화를 위한 전략에 따른 행보이고, 언제든 떠날 수도 있겠지만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볼 때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 미술 시장이 맞닥뜨린 환경의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그 역동적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지에 따라 운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거나 그동안 잠재적 역량은 지니고 있었지만 국제 무대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아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던 한국 미술의 토대를 다지고 넓힐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맞다.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1%의 지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K-아트의 현실을 직시할 때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뿌려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테고 말이다.

미술계의 논쟁적인 화두 'NFT 아트'

요즘 미술 시장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리게 하는 또 다른 화두는 NFT(Non-Fungible Token) 아트다. 지난 3월 비플(Beeple)의 작품이 7백85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에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낙찰된 이래, 전 세계에는 NFT 아트의 열풍이 몰아닥쳤다. 비플의 작품에는 2007년 5월 1일부터 13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한 결과물로 최근의 정치적 소용돌이, 기술 발전에 대한 집착과 공포, 부에 대한 열망과 분노 등 미국 현대 역사에 대한 실시간 고찰이 담겨 있다. 그는 일각의 시선처럼 근본 없는 스타는 아니다. 크리스티 경매 이전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이미 20여 점의 작품을 3백50만 달러에 판매한 디지털 아트 분야의 인기 작가였다. 디지털 아트는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최근의 NFT와 블록체인의 기술로 드디어 상업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티의 비플 경매 이후 글로벌 경매 회사에서는 이브닝 경매에 '크립토 핑크'를 출품하는 등 NFT 아트 특별 경매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다. NFT 아트 열풍에 대한 시선은 크게 엇갈린다. 사실 진지한 접근도 있지만 NFT 아트 열풍에 편승하는 한탕주의적 접근 탓에 본질을 흐린 사건도 있었다. 예컨대 진가를 알 수 없는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작품을 저작권 문제로 해결하지 않은 채 민팅(NFT로 만드는 디지털 암호화 작업)해 경매를 추진한 일을 들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자 경매를 취소해 쓸쓸한 뒷맛을 남겼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오점만 남길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메이커스플레이스(MakersPlace)처럼 회원 가입 절차를 마련한 NFT 아트 전문 거래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NFT 아트에 관련한 제대로 된 전시회조차 열린 적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NFT 플랫폼이 생길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믿을 만한 기관에서 시장 참여자를 위해 NFT 아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NFT 아트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길 만한 현상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기에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글 이현준(크리스티 코리아 대표), 기획 고성연**

미술관에 간 스니커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문화 상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MZ 세대 중에는 아마도 스니커즈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한정판 스니커즈가 땀다 하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이 이제는 흔하다. 쓸쓸한 차익을 기대하는 리셀러든 '소확행'을 위해 몸소 착용하려는 '실차리든' 미술품 모으듯 하는 수집가든,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과 스니커즈로 단정한 채 '득템'하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서는데, 게임을 하며 기다리기도 하는 놀이 문화의 면모도 보여준다. 스니커즈는 이렇듯 강한 흡인력을 뽐내면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간 90조원을 넘나드는 '황금알' 산업이 됐고,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동시대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급기야 미술관의 전시 공간까지 당당하게 차지한 스니커즈를 둘러싼 식지 않는 열기에 대해 스니커즈 애호가인 이우성 작가가 얘기한다.



재작년 여름, 이름이 꽤 알려진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운동화 전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네." 미술관 관계자가 운동화, 즉 스니커즈를 작품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흥분해서 그 전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친구들이 희귀한 스니커즈를 갖고 있으니 전시를 한다면 도와주겠다는 말도 보태면서, 그러나 전시는 열리지 않았다. '스니커즈가 미술관에 들어가긴 어려운 건가...'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작년 여름, 미술품 경매 회사 크리스티가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스니커즈를 전시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오리지널 에어(Original Air)> 행사를 열었다. 그 전에도 크리스티의 경매에 스니커즈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스니커즈 단독은 처음이었는데,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다. 전시 기간 중 1백26개국에서 9만 명이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입찰자 중 72%가 크리스티 경매에 처음 참가한 이들이었다고 하니 관계자들이 패재를 부르고도 남았다. 전시와 경매는 스트리트 웨어 분야의 프리미어 마켓 브랜드 스타디움 굿즈와의 협업으로 열렸다. 당시 스타디움 굿즈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최고 경영자 존 맥페터스(John McPheters)는 "스니커즈가 문화적 산물이며 수집품 시장에서도 다른 명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겸손한 발언이다. 스니커즈는 진작 그 단계를 넘었고, 지금 전 세계 문화의 최첨단이니까.

그저 편한 신발? No, 걸어 다니는 캔버스이자 수집품!

스니커즈가 하위문화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다. 예컨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당연히 운동화를 신었다. 길거리 농구 선수도 당연히 운동화를 신었다. 하위문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흐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렵지만, 스니커즈를 개성 있게 착용하는 것이 어느 순간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멋쟁이들의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또 약간만 관점을 달리하면 스니커즈가 하위문화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다. 스니커즈를 통해 스케이트보드와 길거리 농구, 힙합을 더 주목하게 되었으니까. 스니커즈엔 굿두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정치도, 문화도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추상하는 시대이고, 그 흐름을 우리는 스니커즈를 신고 맞이했다. 스니커즈는 더 이상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다. 지드래곤이

스니커즈를 디자인한다. 유명 래퍼 카네이 웨스트가 스니커즈를 디자인한다. 동시대 가장 재능 넘치는 디자이너이자 컬처 큐레이터로 꼽히는 비질 아블로는 자신의 브랜드 오프 화이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스니커즈를 시장에 내놓는다. 그뿐 아니라 오프화이트는 다른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스니커즈를 디자인한다. '유서 깊은 패션 하우스로 불리는 명품 브랜드, 예를 들어 디올도 나이키와 협업해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요즘 스니커즈를 가만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형태만 다를 뿐 그러거나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캔버스랑 비슷하네.' 그렇다. 실제로 스니커즈는 결국 '걸어 다니는 캔버스'이기도 하다. 반스는 스니커즈를 캔버스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이 말은 반만 맞다. 반스는 디자이너 이 간결한 스니커즈를 내놓았고 전 세계 유명 브랜드, 아티스트가 이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려왔다.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 슈프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다. 종종 이 브랜드의 본업이 '협업'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한데, 그만큼 슈프림의 정서를 탐내는 브랜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스, 나이키, 구찌 등이 슈프림과 손잡고 스니커즈를 선보였는데, 대표적 사례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워낙 많은 브랜드와 협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데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다 어디로 간 걸까? 사실 신으려고 사는 사람 못 지않게 모으려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저 집에 모셔두고 보기 위해 사는 사람도 많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작품'이니까. 눈썰미 있는 큐레이터라면, 저 작품들이 있을 곳은 미술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그 큐레이터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스니커즈만큼 화려하고 변화무쌍하며,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오리지널 에어> 경매에서 '에어 조던 1 하이 산산조각난 백보드(Air Jordan 1 High Shattered Backboard)'는 7억3천만원에 낙찰되어 세간에 화제를 불러모았다. 사실이 건은 나중에 이례적으로 취소되긴 했지만 마이클 조던이 1992년 '드림 팀'의 일원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을 때 신은 '에어 조던 7 올림픽이 1억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1만1천2백50달러)에 낙찰되는 등 당시의 경매 실적은 여전히 양호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 카네이 웨스트가 나이키와 협업해 제작하고 2008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신었던 '나이키 에어 이지 1'은 또 다른 경매업체 소더비를 통해 1백80만달러(한화 약 20억원)에 낙찰되며 새 기록을 달성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앞다퉈 스니커즈 경매



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 기록은 언젠가 또 바뀌겠지만, 경매에 나오는 품목은 전설적인 스타들의 열정과 땀, 역사적 사건까지 반영된 상징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점점 치솟는 낙찰가를 보자면 스니커즈의 동시대적 위상을 드러내는 측면도 분명 있다.

'뮤지엄'에 입성한 스니커즈, 런던을 달구는 <Sneakers Unboxed>전

유수 브랜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특별한 스니커즈를 매장 중앙에 부스를 마련해 전시해두곤 했으며, 팬들은 그걸 보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렇듯 스니커즈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 많고, 그것들 자체가 우리 일상을 바꾸어놓은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지구인들의 문화적 상징이며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한 매력적인 상품이기도 한 스니커즈를 둘러싼 현상은 이제 드디어 전시장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Sneakers Unboxed: From Studio to Street>전(오는 10월 24일까지), 저마다의 의미를 지닌 2백여 켤레의 스니커즈를 내세운 전시장에는 스니커즈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조목조목 펼쳐져 있다. 수십 년을 이어온 히트 상품은 물론 본격적인 스니커즈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컨버스 올스타 칩 테일러 시리즈, 끈을 제거해 스니커즈를 신고 벗는 방식의 페러다임을 바꾼 푸마 디스크, 미드솔에 카본을 삽입해 날아가는 듯한 탄성을 부여한 나이키 알파 벡스트 퍼센트 등을 통해 기술의 진화를 돌아보고, 농구 황제이자 스니커즈의 신이기도 한 마이클 조던의 다양한 농구화, 래퍼 카네이 웨스트가 직접 디자인한 아이다스의 스니커즈 등을 통해 스니커즈가 '걸어온' 협업의 역사를 되짚는다. 슈프림, 오프화이트의 다채로운 협업 스니커즈도 볼 수 있다. 미래도 전망한다. 발의 열 패턴을 사용해 최적의 핏(fit)을 찾도록 설계된 라복의 인스타 펌프 퓨리 시리즈(이 제품은 이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도 마니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스니커즈 혀에 LCD 컴퓨터를 삽입해 러너의 달리기 패턴을 추적하는 아이다스의 마이크로 페이스 기능도 볼 수 있다. 아이다스는 미래의 스니커즈에 열정적이다. 이른바 '3D 뜨개질' 방식으로 순식간에 감편을 짜내는 기술도 아이다스 고유의 것이다. 패들과 패들을 잇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원단을 줄일 뿐 아니라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으니 분명 이로운 기술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만으로 만든 스니커즈, 고기능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만든 스니커즈도 전시한다. 스니커즈 애호가로서 가슴이 뭉클 수밖에 없는, 부럽기 그지



1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Sneakers Unboxed: From Studio to Street> 전시의 설치 이미지. Photo by Felix Speller 2 나이키의 조던 '점프맨 로고. 3 <Sneakers Unboxed: From Studio to Street> 전시용으로 제작된 알라스트릭(하피 작품). 4, 9 <Sneakers Unboxed: From Studio to Street>전에서는 기능 유틸리티 제품에서 일상 패션, 하이엔드 패션과 수집품을 아우르는 소장 가치를 지닌 상징적, 친환정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상품 등 스니커즈의 다양한 면면을 볼 수 있다. Photo by Felix Speller 5 컴퓨터 칩을 내장해 운동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던 퓨마의 'RS Computer' 런닝 슈즈 광고(1986). 30년도 더 흐른 지난 2018년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왔다. Puma Archive 6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이자 패션 스타인 지드래곤이 나이키와의 협업으로 선보인 '에어 포스 1 피라-노이즈(2019)'. 7 에어 조던의 35주년과 미국에서의 첫 번째 디올 남성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2019년 말 처음 선보인 '에어 조던 1 하이 OG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8 아이다스의 퓨처트레프트 스트링(FUTURECRAFT STRUNG) 기술로 운동화의 원단을 짜는 로봇. ESG 경영이 최우선 기운에 주목받는 아이다스의 이 프로젝트는 4D 기술로 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상부 표면의 원단을 실패로 직접 할 수 있으며, 재활용 원료 실패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생산을 추구한다. 10 지난 4월 말, 소더비의 프라이빗 경매에서 1백80만달러(한화 약 20억원)에 낙찰되어 스니커즈 역대 경매 최고 기록을 세운 '나이키 에어 이지 1'. 카네이 웨스트가 나이키와의 협업으로 제작하고 2008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신은 제품이다. Courtesy Sotheby's 11 크리스티가 자체 이름 개편한 '오리지널 에어' 경매에서 한화로 7억3천만원에 낙찰돼 화제를 뿌렸던 '중에는 취소된' 에어 조던 1 하이 산산조각난 백보드(Air Jordan 1 High Shattered Backboard). Courtesy Christie's 12 지난해 열린 크리스티의 자선 경매에서 한화로 2억원에 낙찰되는 가격인 12인조(피우도)에 낙찰된 리오넬 메시의 축구화 한 쌍. 메시가 단일 클럽 통산 최다 골(694골) 역사상 세로 손 경에서 착용하고 뒀던 소아말 한쌍을 돕기 위해 기부한 아이다스 축구화였다. Courtesy Christie's 1, 3~5, 8 런던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 in London) 제2, 6, 7 나이키 제품

않는 전시 풍경이다. 그래서 2년 전쯤 스니커즈 전시 기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큐레이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스니커즈 전시하는 거 야냐고. "당연히 알지, 아,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진행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맥없는 답이 돌아왔다. "허락을 못 받아냈다고.

스니커즈, 날다

세 스니커즈가 출시되면 어떤 제품은 서둘러야 구매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은 응모해서 당첨돼야 살 권리를 얻는다. MZ 세대는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 4050 세대는 여전히 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니커즈를 산다. 누군가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보물이며,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이유이며, 누군가에게 화려한 취미다. 이렇다 보니 '슈테크', '스니커테크'라는 말도 생겼다. 옷돈을 더해 되파는 건 원래 있던 행위지만, 어느 순간 환할 정도로 리셀 시장이 커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몇 시간 혹은 며칠씩 줄 서서 사거나, 추첨에 응모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백만원의 차익을 거둔다. 이렇다 보니 중·고등학교도 용돈을 벌기 위해 스니커즈를 사고판다(대신 줄 서주는 일비도 있을 정도다).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스니커즈를 가져야겠어?"라고 말할 법도 하다. 그렇지만 솔직히 어떤 스니커즈는 마치 신데렐라



10





피카소 탄생 1백40주년 irresistible charms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로 유명세를 얻은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Dyson)이라는 브랜드명이 '청소하라는 뜻의 일반 동사처럼 쓰이는 게 낫다'고 밝힌 적이 있다. 미술계에서 '피카소'라는 이름은 그런 상징성을 지닌다. 20세기를 통틀어, 아니 오늘날까지도 가장 성공한 예술가의 표본을 꼽으라면 '피카소'가 반사적으로 나올 테니까. 흔히 말하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된' 사례랄까. 주말이면 파리를 몇 겹 트 대가 줄이 늘어설 만큼 인파가 몰리는 예술의전당 <Picasso, Into the Myth> 전시 풍경은 새삼 그 이름값을 실감케 한다. 비제아트뮤지엄의 주관으로 피카소 탄생 1백40주년을 기념해 파리 국립피카소미술관에서 온 선물 같은 전시를 계기로 거장의 눈부신 예술 여정을 되새겨본다.

팬데믹 시대에 대다수가 가장 그리워하는 활동인 '여행'. 운 좋게 지구촌을 바삐 누비고 다닌 '호모 비아토르' 유형의 인간인지라 그리움의 장소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필자의 '최애' 여행지는 우리말로 흔히 '남프랑스'라고 하는 프로방스(Provence) 지역이다. 지중해의 매혹적인 풍경이 늘 영감 돋게 하는 남프랑스에 여러 차례 갔는데, 마티스 여행과 '세잔 여행', '고흐 여행'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딱히 피카소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파리,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유수 도시에서 그의 작품을 접해왔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알바를 만큼 거의 커리어 내내 빛났던 찬란한 이력과 화려한 여성 편력 탓에 웬지 정이 가지 않았던 것이었을까?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피카소 여행을 했다. 그가 곳곳에 남긴 자취가 워낙 풍부했고, 또 인상적이니 별 도라가 없었다.



The genius way, 도저히 미워하기 힘든 빼어난 재능과 매력
사실은 "역사~"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그래서 어느 순간 매료된 스스로를 발견할 만큼 피카소의 역량은 빼어나다. 특히 '구겐하임 컬렉션'의 정수가 담긴 액상프로방스에 서의 한 전시에서 접한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해당되는 초기 작품 한 점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받기도 했다. 피카소의 젊은 시절 첫사랑으로 알려진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담은 초상이었는데, 비쁜 외중에도 한참을 쳐다보고는, 나중에 발견음을 되돌려 또다시 감상에 빠질 정도였다. 이렇듯 남프랑스 여기저기에서 문득 피카소를 마주치고, 그 빼어난 창조적 영감을 몇 모금씩 들이켜다 보니 더 갈증이 났다. 그래서 다음에 파리를 방문했을 때는 일러두 마레 지구에 있는 미술관을 찾았다. 바로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Picasso, Into the Myth>전에서 선보인 1백10여 점 소장품의 주인인 국립피카소미술관(Musée National Picasso-Paris)! 단일 작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1985년 문을 열었다. 피카소(1881~1973)는 잘 알려졌듯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해안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지만 20세기 초 파리에 정착한 뒤 생애 전반을 프랑스에서 보냈다. 피카소가 사망한 뒤 그의 유족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는 대신 프랑스 정부에 작품을 기증했고, 덕분에 파리 국립피카소미술관은 회화, 조각, 판화, 태생, 도자기 등을 아우르는 5천여 점의 방대한 작품을 소장하게 됐다. 이번에 그중 1백10여 점의 작품이 예술의전당 전시장으로 나들이를 왔는데, 유희가 34점으로 비중이 꽤 높다. 국립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회화 3백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10%가 넘는 작품을 대어



하는 일이 흔치 않다고 하니 사람들이 몰릴 만도 하다. 물론 '한국을 소재로 한 대형 회화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1951)>이 70년 만에 서울을 찾았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파장이 커진 덕분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미술 거장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구성 자체가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남녀노소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더구나 하늘길이 아직 자유롭게 열리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전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일에도, 사랑에도 에너지를 불사른 열정의 화신
숨겨 좋은 화가는 많다. 걸출한 예술가도 많다.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역사를 바꾼 화가'는 극소수다. 조르주 브라크와 더불어 사물을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과격적으로 일깨워준 입체주의(cubism)의 시대를 연 창시자라는 점에서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창작열을 불태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갔다. 미술사

가 존 핀레이는 천재, 보헤미안, 고전주의자, 원시주의자, 사면, 이단자, 시인, 공산주의자, 모방자, 그리고 심지어 자기 미술의 혼성 모방자 등 끝없이 이어지는 수식어가 피카소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분석했다. 예술적 규범에 도전하고 다시 자신의 초기 발명을 참조하는 식의 역설적으로 보이는 피카소의 방식은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주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불세출의 팔방미인' 피카소의 면면을 한 번의 전시로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그의 걸작들이 한데 모아지지도 않지만, 이번 피카소 탄생 1백40주년 기념전은 연대기별로 꽤 폭넓은 시기를 다양하게 아우른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세간의 영향을 받은 '분석적 입체주의'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만들린을 든 남자(1911)'를 위시해 입체주의의 부조 형태로 현대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기타와 베스빙(1913)', 신고전주의 풍의 구상 회화 '피에로 복장의 폴(1925)' 등 비교적 초기 작품부터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제작한 판화 작업 '볼라르 연작', 그리고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피카소가 이주해 살았던 남프랑스 발로리스에서 만든 도자기 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인 관람객에게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질 '한국에서의 학살'도 바로 이 도자기로 유명한 발로리스의 작업실에서 탄생했다. 스페인 내전의 비극을 다룬 1937년 작 '게르니카' 등에 이은 피카소의 전쟁



3부작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소재로 삼았다(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고발하는 작품이라는 하지만 특정 사건을 묘사한 건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전시장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공간은 '피카소와 여인들'방이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치유제라고 했던 피카소의 애정사를 둘러싼 호(好)는 차치하고 그의 연인들이 뮤즈 역할을 하면서 많은 명작이 탄생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앞서 필자에게 감각적 희열을 선사한 예로 들었던 페르낭드 올리비에부터 젊은 나이에 병사한 에바 구엘, 첫 부인 올가 코콜로바, 청순하고 어린 마리 테레즈 발테르, '게르니카'의 신승인 도라 마르, 피카소의 두 자녀를 낳고 그를 떠난 프랑수아즈 질로,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함께한 자를린 로코에 이르기까지... 피카소에 게 엄청난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은 그의 뮤즈들은 결과적으로 20세기 미술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수놓는데 기여했고, 그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다작을 하는 데도 큰 동력을 제공했다(피카소가 남긴 회화 작품만도 1만3천5백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뮤즈가 되기를 거부한 여인도 있다. 바람기에 넉넉한 연인인 프랑수아즈 질로. 원래 화가로 피카소를 만났던 그녀는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예술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당당하게 성공해 현재까지 백수를 누리고 있다. 질로와 함께한 시절 피카소는 남프랑스의 우아한 항구도시 앙티브에 머물기도 했는데, 요새로 지은 그리말디 성(堡)을 아틀리에로 삼아 작업했다. 훗날 그가 앙티브에서 명예 시민 칭호를 받자 이곳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또 다른 피카소미술관으로 변신했다.

오늘날의 신화를 만든 '소통왕' 피카소의 다채로운 면면
피카소를 둘러싼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에는 그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빛을 뿜어낸다. 평생에 걸쳐 드로잉, 회화, 판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 그는 연극과 발레에도 관심이 많았고 정치, 철학 등 여러 방면으로 해박했으며, 세태를 고발하는 '게르니카' 같은 대작에서도 엿볼 수 있듯 시대정신과 호흡하는 행동가이기도 했다.



<Picasso, Into the Myth>를 성사시키는 데 다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서순주 전시 커미셔너가 이번 전시의 도록 서문에 썼듯 피카소는 모더니즘의 선구자였을 뿐 아니라 탐미적 감각도 구이던 예술이 동시대의 아픔과 고민을 대면하는 정신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서양미술사에서 피카소만큼 '이미지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작가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소풍 도구로 쓰는 데 일

가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달랐다.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다가 '벨 에포크' 시대가 펼쳐지고 있던 20세기 초 파리를 찾은 청년 피카소는 당시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특유의 재능과 매력으로 꽤 빠른 속도로 나래를 펼쳐나갔다. 상류층 인사뿐 아니라 동시대의 화가, 시인, 화상 등과 폭넓은 유대 관계를 다져나가며 만든 '인맥'이 꽤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여러 도시에서도 늘 친근한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주민들과 잘 어울리기도 했다. '예술가도 성공할 필요가 있다.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해나가기 위해서 말이다.' 피카소가 직접 남긴 이 말은 그가 영리한 전략가로서 '인맥'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예술가로서 자신의 이미지까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알게 한다. 신화라는 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글 **고성현**

1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에 위치한 국립피카소미술관(Musée National Picasso-Paris)의 외관. 5천여 점에 이르는 파블로 피카소 작품을 소장해 단일 작가 미술관으로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술관. 피카소 탄생 1백40주년을 맞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회고전 <Picasso, Into the Myth>는 파리 국립피카소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1백10여 점으로 구성돼 있다. Photo by SY Ko 2 피카소의 유희 '만들린을 든 남자(1911)'를 감상하는 한 관람객의 모습. 3 파블로 피카소, '만들린을 든 남자(1911)', 캔버스에 유화. 4 파블로 피카소, '피에로 복장의 폴(1925)', 캔버스에 유화. 5 파블로 피카소, '마리 테레즈의 초상(1937)', 캔버스에 유화. 6 남프랑스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다수의 명작을 남긴 피카소가 실제로 작업한 생자 비클랭을 개조해 만든 앙티브 피카소 미술관. Photo by Jon Jay 7 피카소가 앙티브와 인근 도시에서 머물렀을 때 그의 연인인 프랑수아즈 질로(Françoise Gilot)가 쓴 책 <피카소와의 나날들(Life With Picasso)> 표지. 1921년생질로는 피카소를 스스로 떠난 유일한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목도 많았지만 백수를 누리며 성공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고 있다. 8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시장에서 파블로 피카소의 1951년 작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en Corée)>을 감상하고 있는 남녀 관람객. 함탄에 유화, 작품이 발표된 지 70년 만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기에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라는 이름을 들으면 각자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징적인 작품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빈백이는 다이아몬드를 해골에 촘촘하게 박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라든지, 포름알데하이드가 담긴 수족관에 토막 낸 상어를 담은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같은 작품이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대상일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언제나 섬뜩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이지" 하는 원문적 질문을 하게 만든다.

지구적인 비주요로 이슈를 몰고 다닌 이러한 작품들 때문에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사실 데미언 허스트는 평면 회화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1986년에는 다양한 색상의 도트(dot)를 규칙적인 간격과 크기로 기계처럼 찍어낸 듯한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 시리즈를 처음 내놓았고, 이후 1993년부터 2년여 동안은 전보다 좀 더 자유분방한 타자에 물감을 두껍게 겹쳐 바른 비주얼 캔디(Visual Candy) 시리즈를 선보였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다양한 색채, 명도와 채도 등 질서 안의 무질서는 그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 삶과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색을 통한 그의 회화 작업은 캔버스를 도트로 가득 채운 '컬러 스페이스(Colour Space)'와 '베일 페인팅(Veil Painting)' 등으로 이어졌다.

젊은 시절부터 '기린아, 악동' 같은 이미지를 자넨던 데미언 허스트의 회화 작품은 그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항상 비평가 찬사를 동시에 몰고 다녔다. "해서 피하려 해도 평생 회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는 그에게 회화는 언제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7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가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열리는 데미언 허스트의 (체리 블러섬(Cherry Blossoms))전. 꼬박 3년을 쏟아 지내며 11월에 완성했다는 이번 '체리 블러섬' 연작은 '스팟 페인팅'에서 '베일 페인팅'에 이르는 회화에 대한 그의 오랜 탐구를 완성한 작품 같다. '스팟 페인팅'과 '컬러 스페이스'에서 연구한 무궁무진한 색감, '비주얼 캔디'와 '베일 페인팅'에서 보여준 통성한 입체감과 질감이 한데 더해졌다. 벗꽃나무는 붉은빛이 감도는 정들을 불규칙하게 흩날리며 추상과 구상 사이 오묘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다. 데미언 허스트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는 동안 온전히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작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19년 가르띠에 현대미술재단(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에르베 샹데스(Hervé Chandès) 관장과의 첫 만남에서 상사했다. 샹데스 관장은 런던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에서 체리 블러섬을 처음 봤는데, 곧바로 장 누벨이 설계한 파리의 가르띠에 현대미술재단 건물이 아름다운 연작을 공개하기에 완벽한 장소라 생각했다고 한다. "데미언 허스트는 식물, 삶, 살아 있는 것의 연약함, 민감한 것의 변형을 추구하는 예술가입니다. 체리 블러섬 시리즈는 이것을 열린 형태로 능숙하게 표현한 작품이죠." 샹데스 관장은 또 이 시리즈는 (작가) '내면의 여정'이기도 하고 덧붙였다. 체리 블러섬은 총 1백7점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데미언 허스트가 샹데스 관장과 함께 선정한 30점을 선보인다. 생동감 있고 찬란하지만 그래서 어쩔지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 벗꽃 연작 역시 그의 직업 세계를 관통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팬데믹의 여파로 전시가 예정보다 늦게 열리게 되었지만, 마치 긴 겨울 끝에 봄이 오는 것처럼 맑은 하늘을 담은 허스트의 벗꽃들이 상차원은 사람들을 잠시나마 차유해줄 것만 같다. 글 김민서(안팎미술 콘텐트 디렉터)



blossoming again

‘벗꽃’으로 돌아온 Damien Hirst

항상 섬뜩하고 다소 기괴한 작품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해온 현대미술계의 슈퍼스타이자 '악동 예술가'라는 수식어가 곧잘 따라붙는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가 오랜만에 회화 작품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찬란하게 만개한 벗꽃 그림 시리즈를! 파리 가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막을 올린 그의 전시 소식을 전한다. 외외로 프랑스의 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으로는 데미언 허스트의 첫 번째 나들이라고.



1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 'Fall's Blossom'(2018).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1 2 데미언 허스트, 'Precious Moments Blossom'(2018).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1 3 자신의 런던 작업실에 있는 체리 블러섬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데미언 허스트, 2019. 1969년생인 작가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리즈에서 자랐고, 1984년부터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 Prudence Cuming Associates 촬영.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1

Remember th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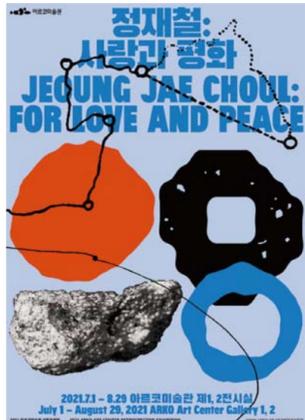
팬데믹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미술계는 이물질 바이러스에 주눅 들지 않고 활기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술관, 갤러리,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간은 관람객 제한, 사전 예약 같은 방역의 기본 자서는 지키되 겨울잠 시기에 공들여 준비한 듯한 각자의 콘텐트를 아낌 차게 고집어내고 있다. 이직은 '하늘같이 자유롭게'에 울어붙는 무더위를 피해 오감을 충족시키고 영감의 스펙트럼에 빠질 수 있는 '공간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지 않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시대의 얼굴, 세익스피어에서 에드 스톤까지> 등
1856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과 함께하는 대규모 해외 문화재 특별전. 지난 5백 년간 제작된 초상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 78점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해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과 다른 생명종과의 공존이라는 주제의 (호모 사피엔스: 진화 ∞ 관계& 미래?) 전은 9월 26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8월 15일까지 문의 www.museum.go.kr



더서울라티움 <아트 오브 뱅크시>
베일에 싸인 예술가 뱅크시의 예술 세계를 다룬 (아트 오브 뱅크시) 순회전이 드디어 서울에 상륙한다. 11개국 투어를 마치고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서울숲에 있는 더서울라티움의 1,545㎡ (4백60평) 공간에서 펼쳐진다. 방금 전 뱅크시가 그려 놓고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리 예술 작품을 원형 그대로 재현했고, 그의 대표작 '풍선 든 소녀', '꽃 던지기'를 비롯해 사진, 조각, 판화 등 1백3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30일까지 2022년 2월 6일까지 문의 www.seoulteum.com



아르코미술관 <정재철: 사랑과 평화>
정재철(1959~2020) 1주기 전. 작가 생전 정소를 이동하며 수행했던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 기록과 수필, 작가 남긴 노트 등을 재구성했다. 해류에 따른 쓰레기의 흐름을 포착해 해양 생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 '블루오션 프로젝트'로 알려진 작가는 장소와 시물에 담긴 기억과 흔적을 탐색했다. 이 전시는 인류의 공유자산 행성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평등, 연대 실종과 환경 파괴라는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공명의 지평을 자랑했던 작가의 사유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기간 8월 29일까지 문의 www.arko.or.kr/artcenter



국제갤러리 <보물섬(Treasure Island)>
지내 부산 전시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호주 원주민 출신 작가 다. 델 보이드의 첫 서울 개인전. 전시장에는 풀로 짠 투명한 정물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재현한, 호주의 역사를 재해석한 회화 25점을 선보이고 있다. 풀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연출한 작품을 매직아이를 경험하는 듯한 생동감을 주며 작품과의 거리를 따라 다양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2층 전시장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회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 기간 8월 1일까지 문의 www.kukjegallery.com

국립현대미술관 <정성화> 개인전 등
한국 단색주 추상을 대표하는 화가 정성화의 대규모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미발표작과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프라주 작업 등 작품과 자료를 1백 장가량 소개하며 가작의 화업을 총망라하는 의미 있는 전시. 4개의 주제와 중앙과 프라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전 지구적 재난을 다룬 관점에서 다른 동시대 작가 35명의 작품 60여 점을 다룬 (재난과 차유전)과 (MMCA 다원 예술 2021: 멀티버스) 참여 작가 김치현친스와 안정주, 전소정의 프로젝트 등이 서울관에서 진행 중이며, 과천본에서는 한국 신인 작가 발굴 대표 프로그램인 (젊은 모색) 4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기간 9월 26일까지 문의 www.mmca.go.kr



갤러리현대 <이강소: 몽유(夢遊, From a Dream)>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강소 작가가 199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완성한 회화 30여 점을 완성해 선보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1층은 민물의 기운을 이마하에 역동적인 붓질과 과감한 액백이 아름다운 대형 회화, 지하와 2층엔 힘찬 화과 여러 층유로 칠한 거친 추상적 붓질. 1980년대 말부터 작가의 작품에 이어온차림 등창한 새와 나뭇배 등을 연상시키는 구체적 형상이 공존하는 회화, 화색이나 흑백의 모노톤 회화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형형색색의 눈부신 컬러를 사용해 평면의 캔버스에 무한의 공간성을 구현한 실감적 신작 회화 등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 기간 8월 1일까지 문의 www.galleryhyundai.co



스페이스 K 서울 <변화율>
영국의 개념 미술가로 자칭 간파하기 쉬운 일상적 사물로 예기치 못한 스토리텔링을 선사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온 라이언 갠더(Ryan Gander)의 전시가 서울 마포동의 핫플로 자리매김한 문화 예술 공간 스페이스K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변화율) (The Rates of Change)이라는 제목을 단 이번 전시에서는 시간성에 천착한 신작 포함 28점을 소개하는데, 조각,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구사한 작가의 폭넓은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미술관 루프톱에 작가의 조각 작품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한층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 기간 9월 17일까지 문의 www.spacek.co.kr/index.do



이모레퍼서픽미술관 <APMA, CHAPTER THREE>
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모레퍼서픽미술관(APMA)의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 2021년 APMA의 첫 전시로 국내외 작가 40여 명이 참가해 총 7개의 전시실에서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 공예 등 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APMA의 현대미술 소장품을 중심으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동시대 작가들의 신선한 면모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 기간 8월 22일까지 문의 apma.amorepacific.com



대규모미술관 대구포럼1, '이건희 컬렉션' 등
대규모 미술관 대구포럼1 (서울)을 위한 놀이타가 막을 올렸다. 동시대 미술의 주요 주제인 신체와 정체성, 난민과 이주, 인간과 지능 등을 다룬 박현기, 백남준, 이강소 등 국내외 작가 8인의 시적 조형 작품 6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월간 출: 환간)도 열린다.
전시 기간 각각 9월 26일, 8월 29일까지 문의 artmuseum.daejeon.go.kr/main

IWC PILOT. ENGINEERED FOR ORIGINALS.



DOWNLOAD THE NEW IWC APP
FOR VIRTUAL TRY-ON

IWC-manufactured 52615 calibre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7 days power reserve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 for the date, day, month and year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6 bar · Diameter 46.2 mm · Stainless steel

— Big Pilot's Watch Perpetual Calendar.
Ref. 5036: 빅 파일럿 워치의 짙은 블루 다이얼은 퍼페추얼 캘린더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켜줍니다. 1980년대 Kurt 클라우스(Kurt Klaus)가 개발한 기계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서로 다른 월별 일수와 윤년을 고려해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 2개의 배럴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IWC 자체제작 52615 칼리버는 완벽한 정교함을 보장합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IWC Schaffhausen, Switzerland · www.iwc.com

IWC
SCHAFFHAUSEN